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0월 7일(음력 8월 19일) 수요일(주간)

법구경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지혜롭게 다스려 가라.

현대불교 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 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황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뜨거워지는 조계종 '선거바람'

청정선거 요구 한 목소리… 토론회 요청 · 모니터링 선언도



청정승가대중결사, 재가연대, 대불청, 불교여성개발원, 경불련 등 10개 불교단체들은 9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10월 22일)를 2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며 공정선거를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량회 · 무차회 · 보림회 · 화엄회 등 조계종 중앙종회 4대 종책모임 의원 70여 명 등으로 구성된 '자승 스님 추대위원회'는 9월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교구본사 주지 19명 등 300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후보로 前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추대했다.

종회의원 60여명과 19개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한 추대식은 각 교구본사 주지들이 직접 집전해 눈길을 끌었다. 고불식은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경과보고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이력소개는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추대사는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이 각각 맡았다.

자승 스님은 추대 수락사를 통해 "종단발전을 위해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라는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종회의원직을 사퇴할 것도 밝혔다. 자승 스님의 출마 선언을 전후해 각 예비후보군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원로의원 종하 스님은 9월 7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져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법주사 봉곡암 주지 각명 스님은 15일, 백련암 회주 대우 스님은 22일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9월 24일 자승 스님 승적관련 기자회견에서 "9월 말 경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원로의원 월서 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장고를 거듭해 추석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도 전화통화에서 "가만 놔두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각 후보군의 움직임과 동시에 '청정선거'에 대한 불교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정승가대중결사(의장 진오)와 '불교지도자넷'(운영위원 법응)은 자승 스님 추대식에 앞선 9월 26일과 28일 각각 성명을 통해 "집단 · 공개적 과시행동은 갈등의 불씨" "4대 종책모임과 19개 본사 주지들이 특정스님을 지지하는 행동은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종책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도 29일 "자승 스님 추대식에 참여한 19개 교구본사 주지의 교구종회 당연직 의장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며 30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에 공문을 접수했다.

또 청정승가대중결사,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여성개발원 등 불교계 10개 단체들은 9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인단 선출 교구종회 일정(10월 7~11일)과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

사부대중의 요구는 한결같다. 공정하고 청정한 선거를 통해 한국불교를 위해 발벗고 뛰어줄 '참일꾼'을 뽑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총무원장을 뽑는 행사를 넘어 향후 선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이정표가 될 까닭에 '청정선거'를 향한 열망은 선거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추진위 발족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아 2011년 개최될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이끌 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경남도(도지사 김태호)는 9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을 비롯해 김태호 경남도지사, 심의조 합천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 문화 관련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2011년 9월 23일~11월 6일 합천 해인사 등 가야면 일대에서 대장경 천년축전을 개최해 대장경을 한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영산재 세계무형유산 등재 될 듯

문화재청, "본의회 등재 확실시" 밝혀

불교종합공연예술인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가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위원회에서 영산재를 비롯해 강강수월래와 남사당놀이, 처용무, 제주칠머리 영등굿 등 5건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여부가 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들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위원회 사전 자문회의에서 등재 권고를 받아 본의회에서 등재가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세계무형유산은 76개국 166건으로 한국에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와 강릉단오제 등 3건이 등재돼 있다. 이번에 5건이 추가 등재되면 한국은 8건의 세계무형유산 보유국이 된다.

한편, 영산재(靈山齋)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했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불교의식이다. 불교의식의 백미로 손꼽히는 영산재는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 후 태고종을 중심으로 보존 · 전승돼 왔고,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활발히 추진돼 왔다. **조동섭 기자**

금주의 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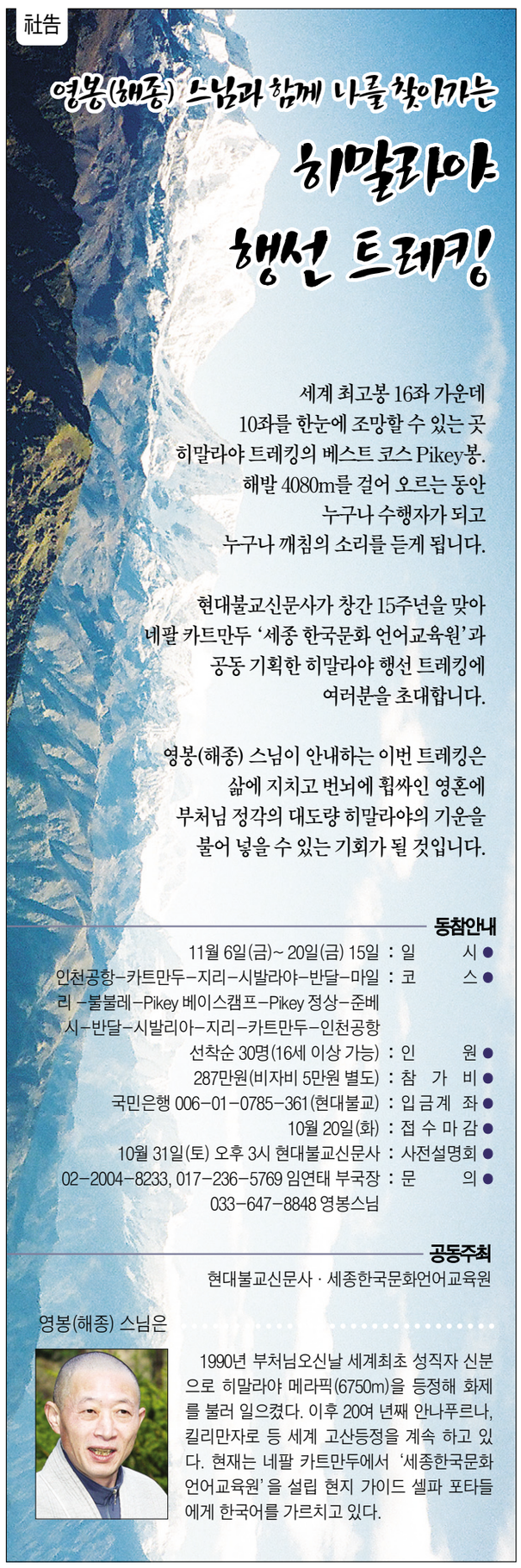

여산 스님
12선지식


정산 스님
14복지


박성배
08학술

금주 24면 발행

社告





사부대중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gongsa2009@hanmail.net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은 종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종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의 기틀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종도들의 아낌없는 의견을 청하옵니다. 대중공의를 바탕으로 종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대중공사(大衆公事)에 종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604호 전화 : 02)723-9341, 팩스 : 02)723-9342, 이메일 : gongsa2009@hanmail.net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김태영 국방장관이 준 감동

국군총신도회장으로 국군불교의 수장역할까지 맡고 있는 김태영 신임 국방부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청렴성과 도덕성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 및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는 달리 도덕성과 관련 '무결점'으로 인정받았다. 김 장관은 사회에서도 흔한 위장전입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아들은 육군 병장 만기 제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 장관의 도덕적 결함을 찾기 위해 조사하던 중 '과속운전 고지서 발부'만을 찾아내는데 그쳐 '도덕적 결함 찾기'를 아예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군의 주요요직을 거치고 합참의장까지 역임한 그가 살고 있는 집이 20평형대 아파트인 것은 세간의 화제거리까지 됐다.

이러한 이유에서일까.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각종 정치공세가 오간 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달리 시종일관 '정책청문회'로 진행됐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결함을 밝히는 신변 논쟁만이 난무했던 그동안 정치권의 인사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이었음이 분명하다.

정치권은 물론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이번 임명을 두고 '환영'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주요 야전지휘관과 참모, 육사교수, 정책부서, 군사외교, 전략 등 폭넓은 경험을 쌓은 이른바 '문무 겸비형' 군인이다. 영국 국방대학원과 독일 육사를 졸업한 실력을 바탕으로 통역 없이도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영어 구사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무부처들은 수장인 김 장관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군 전력 구조 개편 등 현안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의 취임은 김 장관이 독실한 불자라는 측면을 떠나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시민들과 불자들은 94년과 98년 종단 사태를 지켜보고,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부 스님들의 비위사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을 터다. 한국사회 직업군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소방관, 간호사 등에 미치지 못하는 19위를 차지한 '스님'이란 직업아닌 직업은 이것을 반증한다. 총무원장 선거에 직면한 지금, 불교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김 장관 취임에서 보여진 '청정성'이 아닐까.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태고종 집행부 구성 '시동'

인공 스님 원로회의 인준 통과… "종도 화합으로 이끌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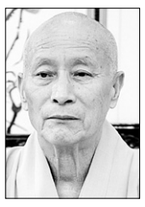
9월 22일 태고종 제 24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인공 스님이 집행부 구성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공 스님은 9월 29일 태고종 원로회의 인준을 통과했으며, 이날 부원장 선임 등 집행부 구성의 초안도 함께 발표했다.

제13회 태고종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 24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은 인공 스님은 이날 태고종 총무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떨어진 태고종 위상을 종도 화합을 통해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부원장에 청봉 스님, 교무부원장에 법현 스님, 재정부원장에 화경 스님을 선임한 인공 스님은 "종도들의 뜻을 모아 부원장 스님들이 11월 정기중앙종회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 · 부장 스님들은 10월 7일 열리는 전국 종무원장 회의에서 추천 ·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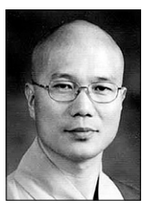
인공 스님은 태고종 제반사항과 조계종 선거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7~29일경 총무원장 이취임식을 가진 예정이다.



인공 스님.



청봉 스님.



법현 스님.



화경 스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공 스님은 현안문제에 대한 차기 집행부 기조도 밝혀졌다.

봉원사 부채 문제에 대해 인공 스님은 "10월 16일 법원에서 조계종과의 조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구역을 실측 중으로 조계종 안과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원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단 위상을 새로이 제고하겠다"며 "투명한 종무행정으로 종단 안정과 화합, 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종단이 어렵지만 한데 힘을 모아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부원장에 선임된 청봉 스님은 1974년 찬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79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고시위원회 위원, 중앙사정원 부원장, 경기동부종무원장을 역임하고 중앙초심원장을 맡고 있다.

교무부원장 법현 스님은 1985년 득도, 1991년 덕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교류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으로 12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부원장 화경 스님은 태고총림 선암사 강원 1기 졸업생으로 경기남부 화성, 오산 분원장과 총무원 종무위원, 경기남부종무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남부종무원장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최우수상에 박세운씨 '자유마을'

민추본, 7일 제2회 평화통일사진 공모전 시상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 '2009년 제2회 민추본 평화통일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제2회 민추본 사진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당선된 박세운 作 '자유의 마을'.

민추본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바람으로 '2009 민추본 평화통일사진 공모전 당선작 및 북녘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며, 최우수상에 박세운씨의 '자유의 마을'(작품명) 등 15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추본은 "2회째를 맞는 이번 평화통일사진 공모전은 작년보다 많은 수의 작품이 출품됐고 작품의 질도 높아졌다"며 아울러 "사진전이 '10.4선언'일에 즈음하여 개최됨으로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10월 7~9일 수상작품 및 북녘동포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이 조계사내 갤러리 '나무'에서 함께 전시된다.

박선주 기자

혜자 스님 재임

도선사 주지 임명받아

혜자 스님이 도선사 주지에 재임됐다.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지관 스님은 임명식에서 "108산사 순례를 이끌며 불교 위상을 높이고 불교적 도움뿐만 아니라 지역 토산물 구매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줬다"며 "매번 100여대의 버스가 가는 등 많은 인원이 움직여 집행하는 고생이 많다. 임기 동안 무탈히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혜자 스님은 "첫 순례 이후 3년이 지나, 얼마 전 37번째 순례로 범어사를 다녀왔다. 계속 열정을 갖고 순례회향까지 무탈히 회향토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교계와 정부 소통 가교역 충실"

박재완 청불회장 · 주호영 특임장관 종정 예방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9월 26일 합천 해인사 퇴설당에서 청와대 불자회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주호영 특임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박재완 수석과 주호영 특임장관(왼쪽부터)의 예방을 받은 조계종정 법전 스님.

이날 박재완 청불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한 난 화분과 선물을 전하며, "불교계 목소리와 정부 입장을 소통시키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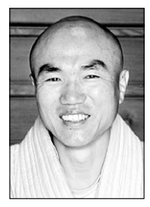
이에 법전 스님은 "불교계는 합심해 그에 상응하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굳은 불심과 현명한 판단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를 잘 보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심의조 합천군수 등도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금산사 일감 스님 국무총리 표창

템플스테이로 관광 활성화 기여



김제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사진)이 '제36회 관광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9일 특색있는 템플스테이운영으로 국내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일감 스님에게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은 한류 열풍의 주역인 탤런트 최지우 등 6명, 국무총리 표창은 일감 스님 등 11명, 문화부장관 표창 110명, 한국관광공사사장 표창 38명,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표창 65명, 관광진흥탑 5개사 등에도 수여됐다.

일감 스님은 전통을 오롯이 살리면서 춤명상, 화전놀이, 일출맞이 템플스테이 등 계절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따라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2007년 4000명, 2008년 5000여 명 등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금산사는 10월 10~11일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추억의 템플스테이-앞아봐라! 처처가 꽃밭이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먹물들이기, 작은 산사음악회, 일감 스님의 산사토크, 무심 스님의 초청법문, 풍물장터, 사찰음식 3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063)548-4442

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제21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10월 13~21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 분야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계층포교분야 △군, 경찰, 직장직능 등 직능포교분야 △미술,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문화체육포교분야 △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포교분야 △방송 · 언론, 출판 · 인쇄, 인터넷 등 매체포교분야다. 추천서류는 포교원(www.buddhism.or.kr)으로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10월 21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02)2011-1894

이상언 기자

달아오르는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buddhanes.com에
빠르고 정확한 기사가 있습니다.

ONENESS KOREA

'하나됨으로 사는 삶'
LIVING IN ONENESS
10월 30일, 31일 11월 1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 세계적인 원네스 강연자 아난다기리지의 3일 컨퍼런스를 통해 당신의 삶 속에 부, 건강, 사랑과 행복이 더욱 넘쳐흐르는 소중한 기회를 잡으세요!

115개의 국가, 1억5천만명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 원네스현상을 지금 경험하세요!



■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원네스과정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 삶에 대한 법칙 터득하기
- 부모, 배우자, 자식, 동료들의 관계회복 및 치유
-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 자신을 포함한 모든것과 하나됨 이루기

- 일 시 : 2009년 10월 30(금), 31일(토), 11월 1일(일)
- 장 소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대강당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 강 연 자 : 아난다기리지(인도 원네스 유니버시티 강연자)
- 금 액 : 95만원(입금 선착순 자리배정)
- 홈페이지 : www.onenesskorea.com
- 예약문의 : tel- 070-8244-8020
mail-onenesskorea@gmail.com
카페-http://cafe.naver.com/onenesskr

주 최 : OUR Home 및 아워홈 협력업체 ONENESS UNIVERSITY

10·27법난 30주년 기념사업 본격화

법난피해명예회복심의위 동대의료원 검진병원 지정… 9일 기념법회 · 심포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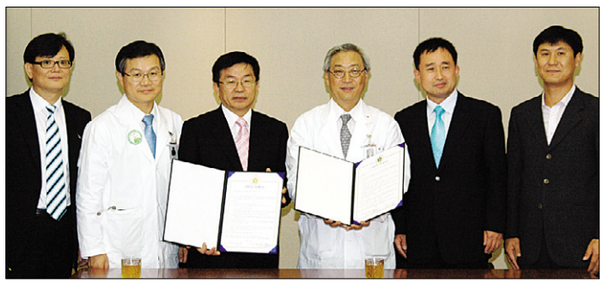
10 · 27법난 30주년을 앞두고 법난 피해자를 위한 검진지정병원을 선정하는 등 기념사업이 본격화 됐다.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명례회복심의위)는 10 · 27법난관련 법령의 의료금 산정 및 피해 상이자 검진을 위한 검진병원으로 일산 동국대학교 의료원을 1차로 지정하고 9월 29일 동국대 일산병원 원장실에서 검진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이명묵 동국대 의료원장과 명예회복심의위 박충신 지원단장, 이진호 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명예회복심의위는 피해신청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전국에 있는 국립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부속병원 중 8~10개소를 검진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명예회복심의위 이성덕 의료판정팀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신청이 필수적이다"며 "피해상이자 스님들이 반드시 신청해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상처도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 · 27법난명예회복심의위는 검진병원으로 일산 동국대 병원을 1차로 지정하고 9월 29일 동국대병원 원장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왼쪽 세번째부터 명예회복심의위 박충신 지원 단장과 이명묵 동국대 의료원장.

동국대병원 원무과는 "당시 피해상이자 스님들을 검진해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많고, 당시 연행수사 과정에서 입은 골절로 30년간 후유증을 안고 산 경우도 있다"며 "많은 분들이 치료에 신청해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회복심의위는 신청기간을 2010년 3월 17일까지 연장해 피해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명예회복 신청과 의료지원금 신청으로 구분해 신청 받고 있다.

법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의료지원금 신청자 중 10 · 27법난과 관련된 질환을 대상으로 검진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거친 후 위원회에서 향후치료비, 개호비(개인간호비용), 보장구(보호 장구 구입)구입비로 구분, 심의 · 의결해 피해상이자에게 지급한다.

명예회복심의위의 중점사업인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을위한 역사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역사 교육관 부지선정 위원회' 구성 회의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조계종과 명예회복심의위는 오는 10월 9일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기념법회와 학술심포지움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본 10 · 27법난의 진실'을 주제로 10월 9일부터 27일 까지 당시 오도된 언론 보도내용과 사진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전시장에 전시한다.

이번 행사는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불교계만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라는데 의의가 있다. (02)748-5555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목조문화재 65.5% 화재보험 미가입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밝혀…장경판전 등 포함 · 보험가액도 미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제52호) 등 국보 ·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65.5%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도 보험가액이 실제 평가액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9월 2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7월 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국보 · 보물 151건 중 99건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보 · 보물 130건(이 중 국보는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24%인 3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경남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과 국보 18호인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67호인 전남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등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았다.

국보 14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예는 금산사(국보 62호, 전북 김제)와 진남관(국보 304호, 전남 여수), 통도사(국보 290호, 경남 양산) 등 3곳에 불과했다.

보험가입이 됐어도 훼손 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가액은 턱없이 낮았다. 재산대장상 가치가 608억원인 경복궁의 보험가액은 339억원이었고, 가치액 160억원의 종묘 보험가액은 35억원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궁 · 능 소재 20건만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적 180건과 중요민속자료 148건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회사 가입통계자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은 "지난해 숭례문화재로 인한 국민적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의 화마에 대한 인식이 변화지 않고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 혹은 훼손 시 복원을 위한 사후적 차원을 위해서라도 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터뜨린 제1회 전국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시상식이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150여 명을 포함해 교리경시대회를 주최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 주관 단체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련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이사장 도후 스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혜원 스님, 화엄학림 학장 법인 스님, 중앙종회의원 성효 스님, 무자 스님, 덕문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4대강 사업 저지 위해 위헌 소송

불교환경연대 등 4대강사업저지법대위 국민소송 추진

불교계와 시민 ·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위헌 소송에 나선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9월 30일까지 모집하고 국민소송을 추진한다.

모집된 법률지원단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10월 초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무효소송제소, 사업중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한다.

이번 국민소송이 추진된 배경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재해예방 · 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 조항을 만들어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든 상태다.

이는 헌법 75조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대강저지범대위는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근거와 타당성이 없음은 물론, 관련 법과 절차가 무시 된체 추진됐다"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됐다.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 90%를 면제받았으며 이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남지방 종교인들이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공동대표 도관)는 9월 28일 부산역 앞 광장호텔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지키기를 비롯해 종교간 평화연대와 대북 민간지원 등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종교평화연대는 생명 평화에 대한 소명발표와 함께 '낙동강 지키기 실천사업'으로 각 사찰과 교회, 성당 등에 홍보 펼침막을 걸고 스님, 목사, 신부 등 각 종교인들이 릴레이 단식기도, 종교 합동기도회와 학술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02)720-1654

박선주 기자

불교와 젠더 포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8일

불교계 내부의 성차별에 대한 성찰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10월 8일 오후 3시 불교역사박물관 2층 소회의실에서 '불교적 수행과 여성주의의 만남'을 주제로 제1회 불교와 젠더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불교는 과연 여성 친화적인가?' '불교적 수행은 어떻게 여성주의와 만날 것인가?' 등의 주제로 고미라 박사(이화여대 여성학)가 강의를 진행한다.

포럼을 통해 여성의 인권 · 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른 불교계 내 성찰 인식 요구에 부흥하고 왜곡된 교리 해석 및 제도를 살펴볼 전망이다.

김영란 소장은 "교리, 제도, 문화 속에서 성평등적 여성관을 확립하고 여성의 권익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여성의 목소리로 교계 내 담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32-1367 이상언 기자

지율 스님 동아일보에도 승소

"과장보도에 언론 자유 없어 배상" 선고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사진)이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판사 최한돈)은 지율 스님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지율 스님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일보는 칼럼과 사설을 통해 '천성산 터널 반대 운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2조 5000억원으로 보도했다"며 "언론사의 사설 · 칼럼이라도 과장 · 왜곡됐다면 특별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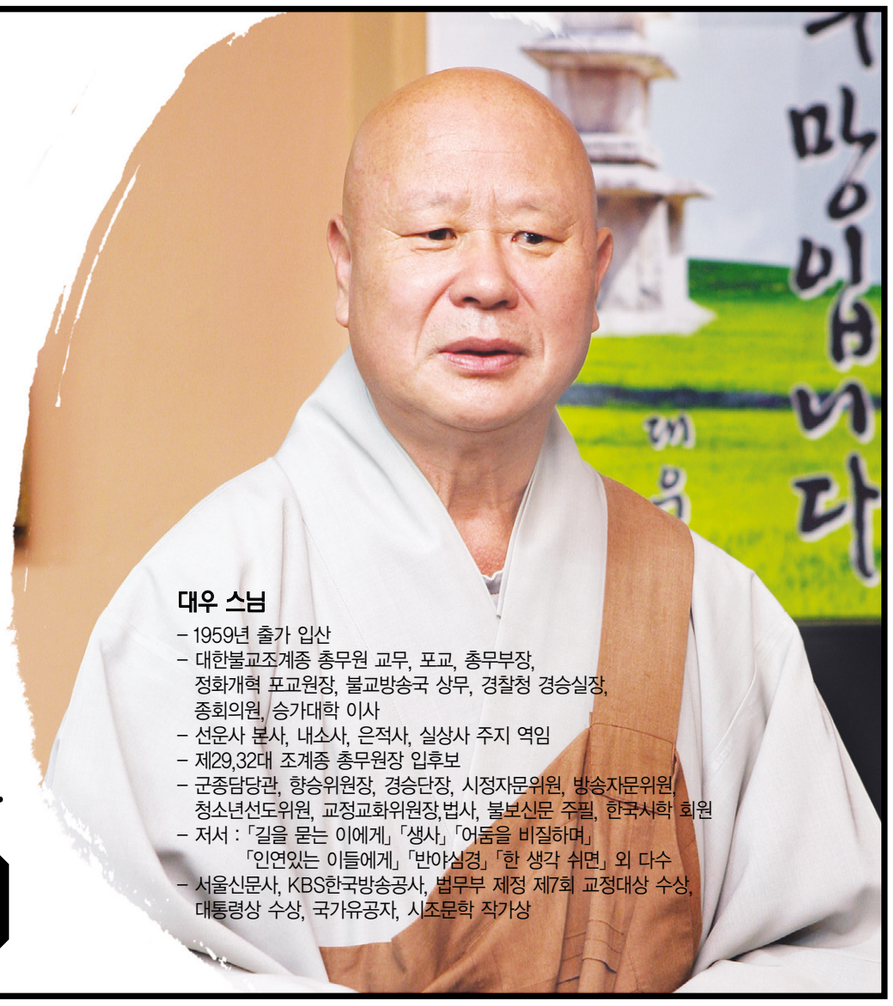
동아일보와의 판결 뒤 지율 스님은 홈페이지(초록의공명, www.chorok.org)에 올린 글을 통해 "법에 대해 문외한이던 내가 밤새워 법리를 뒤져가며 섰던 법정이었지만 승소 후에도 여전히 마음 내려놓을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율 스님은 "이 소송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준칙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점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22일 조선일보가 항소를 포기 함에 따라 지율 스님은 조선일보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율 스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26일자 신문에 정정보도를 냈다. 이는 지난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판사 조원철)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율 스님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10원' 요구 소송에 일부 승소한 결과이다.

박선주 기자

시조문학 작가상 수상!!
대우스님 禪詩
그대 그리운 날
어느 가을날
詩人 대우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를 묻길래
세월에 놀라 버리고 떠날 줄 아는
낙엽을 붙들고 있다고 손 내밀었네
고요도 몸져누운 뜨락에 지는 낙엽
그 무게 얼마인지 궁금함을 눈짓해
바람에 가서 물어보라 말해 주었네.


법보시 문의 받습니다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우주의 주인
백련참회굴 백련선원 대우 합장 010-2625-3307

대우 스님
- 1959년 출가 입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총무부장, 정화개혁 포교원장, 불교방송국 상무, 경찰청 경승실장, 종회의원, 승가대학 이사
- 선운사 본사, 내소사, 은적사, 실상사 주지 역임
- 제29,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입후보
- 군종담당관, 향승위원장, 경승단장, 시정자문위원, 방송자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교정교화위원장,법사, 불보신문 주필, 한국시학 회원
- 저서 : 「길을 묻는 이에게」「생사」「어둠을 비질하며」「인연있는 이들에게」「반야심경」「한 생각 쉬면」 외 다수
- 서울신문사, KBS한국방송공사, 법무부 제정 제7회 교정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국가유공자, 시조문학 작가상

‘십현담요해’ 고찰 8일 학술대회

성철 스님의 서고 ‘장경각’에서 발견된 희귀본 <십현담요해> 언해본을 학술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성철선사상연구원은 10월 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십현담요해 언해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성철 스님 열반 16주기를 기념해 열리는 행사에는 △하정용 백련불교문화재단 연구교수-<십현담요해>의 서지학적 고찰 △박진호 서울대 교수-<십현담요해> 언해본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최귀묵 숙명여대 교수-<십현담요해>에 담긴 김시습의 사상과 글쓰기 △한종만 원광대 명예교수-<십현담요해>, 청량 문익의 <청량주>, 만해의 <십현담주해> 비교검토가 발표된다. (02)2198-5372 조동섭 기자

김홍도 그림 기본으로 역사까지 복원

양양 낙산사 12일 제2차 복원불사 회향… 11일 산사음악회

2005년 화재로 많은 문화재가 소실돼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가 5년 여의 불사를 마치고 옛모습을 되찾았다.

낙산사는 10월 12일 오전 11시 경내 원통보전에서 ‘낙산사 제2차 복원불사 회향식’을 봉행한다. 이에 앞서 오전 5시에는 원통보전 후불탱화 · 신중탱화 점안식을 봉행하고, 11일 오후 9시에는 범종루 앞에서 산사음악회도 개최한다.

회향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김진선 강원도지사, 이진호 양양군수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산사는 2007년 11월 원통보전과 홍련암 범종각 홍예문 등의 전각과 시설 복원(건립)에 이어 설선당과 응향각, 무산지역아동센터 등 12개 전각과 시설을 복원했다.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바탕으로 복원된 낙산사 전경.

낙산사 복원은 조선 중기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기본으로 문화재위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빈일루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친필로 현판을 제작했다.

정념 스님은 “낙산사 가람을 복원하는데 있어 단순하게 건물, 당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역사 · 문화를 찾는 과정이라 여기고 함께하는 공간,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복원된)응향각과 설선당 정취전에 각각 일반인을 위한 명상센터와 일반관람객을 위한 공간, 차담을 나눌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낙산사가 양양읍에 설립한 ‘무산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들에게 도서관과 공부방을 제공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낙산사는 2차 회향법회에 이어 3차 중창불사에 들어간다. 3차 중창불사는 1 · 2차 복원을 통해 옛모습을 되찾은 낙산사에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등 낙산사의 비전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한편, 정념 스님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에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낙산사 복원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텐데 마음을 내줘 고맙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낙산사를 복원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종합센터도 건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단과 함께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마음을 내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 박선주 기자

‘맞춤형 의료봉사’ 인기폭발

병불련 정읍 일원서 추계연합의료봉사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련)가 9월 27일 전북 정읍 일원에서 추계연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내장사 소재지인 이평면 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지선 스님, 정읍시 강광 시장, 이평면 외 두지리, 하송리, 팔선리 주민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희한의원, 한일병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국립의료원, 국립경찰병원 등 12개 병원과 김은실 진료봉사단장, 한방과 박종훈 원장, 치과 김진섭 원장 등 회원 40여 명이 참가했다.

입제식에 이어 진행된 봉사는 심전도기, 초소형 혈액검사기(생화학검사) 등 병불련의 최첨단 장비가 동원돼 봉사자들의 ‘맞춤형 의료봉사’가 진행됐다. 의료봉사가 시작되자 곳곳에서는 “고맙다. 안심이 된다”는 인사말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봉사는 내과 · 한방과 · 치과 등 총186건 진료, 심전도 · 생화학검사 · 혈당검사 등 79종의 검사가 실시됐다. 짧은 시간 많은 진료와 검사가 이어졌지만 병불련 회원들은 지칠 줄을 몰랐다.

이동숙 총무(국립서울병원)는 “진료, 검사를 받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 켠이 뭉클하다”며 “바쁜 와중에도 회원들의 의료포교 원력으로 원만회향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대원 스님은 “전국 사찰에서는 병불련이 의료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년에는 내장사 경내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불련은 추계봉사활동에 이어 해외의료봉사활동, 불교의료봉사자의 발굴, 동국대병원 연대 등을 기반으로 의료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9월 29일 자비실천어머니회 자원봉사자 위촉장 수여식 모습.

“갈등 해소 모범… 신행도 모범”

원주경찰서 법우회 부처님 봉안 8주년 법회

자비실천운동본부 자비실천어머니회(회장 해광)는 9월 29일 법무부 대덕소년원 학생들과 자매결연(18명 학생)을 맺고 앞으로 장학후원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해광 스님은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해 밝은 사회 아름다운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자비실천어머니회가 설립된 지도 10년이 됐다”며, “2000년 법무부 안산의료소년원을 시작으로 대덕소년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전후방 군부대 후원에 동참해주신 봉사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총재 석지 스님, 수석부총재 지암 스님, 묘화심 여수 자비실천어머니회장, 백년화 부산 자비실천어머니회 회장, 윤태길 안양 자비실천어머니회 회장, 보덕심 자비실천어머니회 운영회장, 자비화 어머니회 총무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원주경찰서 법우회는 10월 28일 원주경찰서 경승실 부처님 봉안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강원지방경찰청 경승지단장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원주경찰서 경승실장 현각 스님(성불원 주지), 원주지구 사암연합회장 적천 스님(치악산 구룡사 주지)을 비롯해 60여 경불회원, 지역 각급 신행단체장들이 참가했다.

허남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날 이웃 종교인들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감사하다”며 “경불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정진하고 시민봉사에 앞서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경승실 부처님 봉안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법하게 대처한 것은 종교 갈등을 모범적으로 해결한 사례인 만큼 불자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며 “더욱 정진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경승실 부처님 봉안 반대 운동 사건은 2001년 9월 원주경찰서 경승실에 부처님을 봉안한데 반발해 원주지역 개신교인 3500여 명이 원주천 고수부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일부 교회에서는 불상 철거를 위한 부흥성회를 가진 대표적인 훼불사건 중 하나이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계층포교 매진하겠다”

불레협 12대 회장 도경 스님 취임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를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단체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하 불레협) 제 11 · 12대 회장 이 · 취임법회가 9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 혜총 스님, 신임회장 도경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초대회장 혜일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중앙신도회 손안식 부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前 회장인 송묵 스님은 해외 일정으로 불참했다.

혜총 스님은 치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불레협 회장 소임을 원만히 회향한 송묵 스님의 노고를 치사하며 새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도경 스님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임회장 도경 스님(예천 원명사 주지)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 등 사부대중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어린이 · 청소년 및 계층 포교에 매진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불레협 활동에 적극 관심과 애정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 취임식에는 지환 스님(봉영사 주지), 귀영 스님(바라오페라단 단장, 양주 대승사 주지), 종률 스님(세광사 주지)에게 부회장 임명패도 수여됐다. 이상언 기자

대승종 2009 종도수련회 봉행



대한불교대승종(총무원장 도일)은 9월 22~24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2009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교육원장 도관 스님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종단임원을 비롯 종도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부종정 지신 스님 취임법회도 함께 봉행됐다.

총무원장 도일 스님은 “종도교육은 종단운영의 기본으로 각 종도들은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02)951-1074 노덕현 기자

왕흥사지서 대규모 강당지 발견

국립부여문화재硏, 10차 발굴조사 결과 발표

6세기경 백제 왕실사찰로 발굴조사가 한창인 부여 왕흥사지(사적 제427호)에서 대규모 강당지가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9월 29일 “부여 왕흥사지 제10차 발굴조사 결과 강당지 등의 규모를 파악했고 강당지 좌우에서도 부속건물지가 확인돼 왕흥사 중심부 가람배치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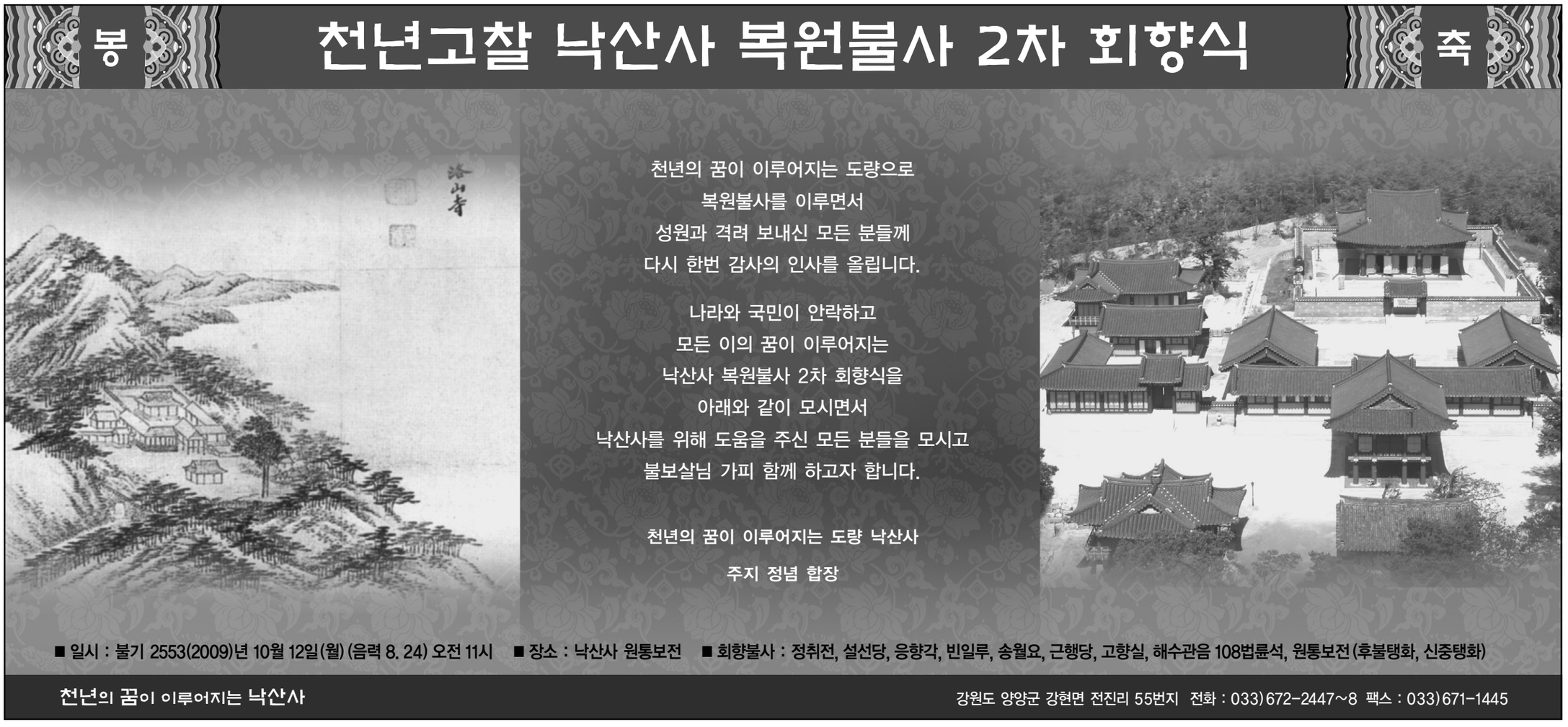

부여 왕흥사지서 발굴된 강당지 모습.

지금까지 부여 왕흥사지에서는 목탑지, 금당지, 동 · 서 회랑지, 축대(동서석축) 및 진입로(남북석축) 등이 확인됐고, 목탑지 심초부에서는 절대연대(577년)를 가진 ‘창왕명’ 사리기와 각종 공양구가 출토돼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에 확인된 강당지는 금당지 북편기단으로부터 16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규모는 동서 46.8m, 남북 19.2m이다. 이는 군수리사지(45.45×15.15m), 금강사지(45.1×19.1m), 능산리사지(37.4×18.0m) 등 현재까지 확인된 6세기대 백제사찰 강당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강당지의 동 · 서 · 북편기단은 30㎝ 내외의 할석을 쌓아 만든 석축기단이고, 남편 기단은 다듬은 석재를 이용한 가구식 기단이다. 남편기단 바깥으로는 10㎝ 내외로 할석과 기와를 빽빽하게 세워 조성한 ‘낙수받이시설’도 드러났다.

또, 강당지 서편기단에서 1m의 간격을 두고 건물지 1동이 확인되었는데, 동편기단은 돌로, 남편기단은 평기와를 쌓아 조성됐다.

김용민 소장은 “강당지 및 주변 건물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그 전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750-52009.10.511:5AM페이지1(1,1)

걸음 걸음 참회… 부처님께 한걸음 더

혜원정사, 21일 적멸보궁 법흥사서 제3차 삼보일배 순례기도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9월 21일 강원도 영월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주지 도완)에서 제3차 삼보일배 순례를 진행했다.

지난 3월 속리산 법주사, 6월 오대산 월정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순례는 1, 2차 참가자 및 9월초 개강한 불교대학 수강생까지 총 85명이 동행했다.

새벽 6시 부산을 출발해 오전 10시 30분경 법흥사에 도착했다. 이른 새벽 출발한 탓에 조금 이른 점심공양을 마치고, 절에서 준비한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더러는 마스크, 장갑, 땀수건 등을 두르며 삼보일배를 떠날 채비를 했다.

주지 원허 스님을 선두로 똑같은 회색 법복을 갖춰 입은 불자 80여 명이 3열종대로 질서정연하게 걸음을 옮겼다. 법흥사 경내 초입에 자리한 산신각에서 출발해 적멸보궁까지 2시간여 삼보일배 기도가 시작됐다. 산비탈 길은 비 온 뒤 땅이 채 마르기도 전이라 미끄러웠고, 스무 걸음 걷기도 전에 진흙이 이마와 팔꿈치, 손바닥, 무릎에 묻었지만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았다.

삼보일배는 여러 뜻이 있지만 원래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의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이다. 즉 1보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2보에 가르침에 귀의하고, 3보에 스님들께 귀의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삼보일배 수행법에 참회라는 발원을 더해 한 걸음에 이기심과 탐욕을 멸하고, 두 걸음에 속세에서 더럽혀진 진심(塵心)을 멸하며 세속에서 그간 지었던 모든 업을 참회하고,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에게 다가갔다.

3~40대 기운 넘치는 젊은 보살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70대 이상 노보살이 더 많았다. 행렬 가운데 몸이 가누기 조차 힘겨워 보이는 장애를 가진 신도도 눈에 띄었다. 젊은이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을 삼보일배는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원만회향 할 수 있었다.

2시간 여 삼보일배 기도 끝에 도착한 적멸보궁에서 발원문, 참회계 낭독, 연비, 축원 등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에서 주지 원허 스님은 "흔히 우스갯소리로 '절에 주차장이 불편하면 안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요즘 불자들은 부처님을 너무 쉽게 만나려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옛 어른들은 초하루에 절에 올라가기 3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음식도 가려먹으며 정성을 들였는데 이 모든 과정 또한 기도"라며 "차를 타고 가기보단 걷기, 마냥 걷기 보단 삼보일배를 하며 1배, 1배 정성들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참된 불자의 자세일 것"이라고 설했다.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며 자신이 지은 모든 업을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겠다는 또 다른 서원을 세웠으니, 진정한 수행이고 보살행이다. (051)866-777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왼쪽)과 영월 법흥사 적멸보궁까지 삼보일배 정진중인 신도들.

불교계 공모전

각 분야별 개최

가을을 맞아 부산 불교계에 각종 공모전이 한창이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개산대제를 맞아 범어사 사진 공모전 및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고, 차 문화 글짓기 현상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범어청소년동네(이사장 정여, 051-581-2070)는 범어사 개산대제인 10월 10~11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앞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10월 10일 오후 1~5시까지 '청소년 및 가족사진대회'를 열고, 범어사를 주제로 범어사 경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모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 051-513-4306)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오후 1시까지 범어사에서 '의상대사 아동청소년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원장 이경순, 051-809-1551)는 '제4회 부산국제 茶어울림 문화제'의 일환으로 '제1회 차 문화 선양을 위한 글짓기 현상공모'를 마련했다.

공모대상은 운문(시, 시조) 200자 원고지 15장 내외이며, 산문(수필, 콩트) A4 2장 등이다. 접수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도착분에 한하며, 당선작은 10월 16일 발표한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멈추지 않는 도전, 동고성FC

"축구가 마법 부린 것 같아요"

세계 최강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는 파리의 빈민가에서 불량한 유년시절을 보내던 중 TV축구중계를 보다가 축구에 매료돼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멋진 축구선수가 된 이들이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유년시절은 현재의 명성만큼 빛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어쩌면' 이라는 일말의 희망만이 있을 뿐이었다. 바로 고성 보리수선원(선원장 승욱)이 창단한 동고성FC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그랬다.

9월 16일 경남 고성군 개천면 보리수동산에서 동고성FC(감독 박철우)가 주축이 된 고성유소년클럽(U-15)이 창단됐다. 보리수동산은 고성의 옥천사 청련암 승욱 스님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결손 가정 어린이 및 청소년 70여 명이 함께 살고 있다. 승욱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 아이들의 체력과 인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축구였다. 예상대로 호응이 좋아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축구단에 들어왔다. 초등학생은 30명 중 14명, 중학생은 40명 중 20명 등 총 34명의 축구선수가 소속돼 있다. 사회복지사로 아이들을 보살피던 박철우 감독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타 축구부의 훈련을 몰래 보고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덕분에 박 감독은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 축구부 옷은 타 학교에서 얻어다 입고, 원정대회에 나갈 때면 16인용 텐트에서 새우잠을 자야했지만 어느 한 사람 불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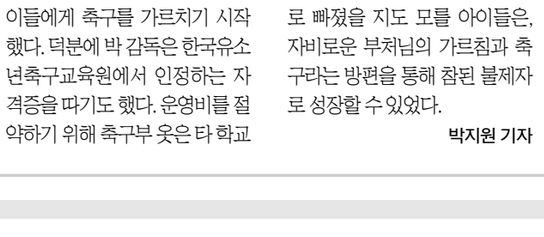
박 감독은 "축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법을 부린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시설에서 성장해 19세가 되어 독립하면 삐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들 동고성FC는 2003년 3월 용마축구단으로 창단해 2007년과 2008년 경남꿈나무대회에서 각각 초, 중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2008년 2월 제1회 STX꿈나무축구대회에서 초등부와 중등부 모두 우승을 휩쓸었다. 그해 7월 대한민국클럽축구대제전에서 중등부 서포터스상 수상, 8월 경남FC 유소년캠프에서는 모범상을 수상했다.

동고성FC의 승리의 주역인 신민규(14, 영천중1) 선수는 "아버지 얼굴은 생각 안 나지만, 박지성 선수처럼 되서 축구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또 골키퍼 김동천(14, 영천중1) 선수는 "김병지 선수를 능가하는 수문장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현우(15) 선수는 "U-18 팀인 진주고를 거쳐 프로팀에 입단할 것"이란 당찬 포부를 밝혔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나쁜 길로 빠졌을 지도 모를 아이들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축구라는 방편을 통해 참된 불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박지원 기자



동고성FC 유소년 축구단.

한가위 맞아 어르신께 '공양'

불교계복지관, 기초생활수급자등에 먹거리 전달

부산지역 불교계복지관들이 추석연휴를 홀로 쓸쓸히 보낼 어르신을 위한 명절음식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정련, 051-264-9033)은 9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복지관 앞마당 및 몰운대아파트, 다대본동 등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0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장애인 30세대, 저소득가정 아동 10세대 등 총 100세대를 대상으로 송편 및 생필품 세트, 먹거리 등을 전달했다.

늘기쁜마을 두송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지현, 051-265-9471)은 9월 21~30일 사하구 다대2동 BMC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100세대에 각 쌀 10kg씩 총 1t을 직접 방문 전달했다. 이어 추석 연휴 첫째 날인 10월 1일에는 독거노인 50세대에 송편과 제수음식, 라면, 부식 등을 전달했다.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혜총, 051-626-6737)은 추석을 사흘 앞둔 9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차에 걸쳐 복지관 대강당에서 '한가위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고, 명절음식과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혜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대표이사 원허, 051-868-0138)는 10월1일 연제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총 50세대에 나물, 생선, 튀김, 산적 등 명절음식과 각종 제수용품, 속옷, 간식거리, 생필품 등의 선물세트를 직접 방문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전역에 퍼지는 자비의 손길

생명나눔, 난치병 환우돕기 · 환자쾌유 위한 음악회 열어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등 사업을 펼쳐온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한가위를 즈음해 부산 각지에서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9월 21일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난치병 환우돕기 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26차 환우로 선정된 문정희 씨는 연이은 사업실패와 당뇨병 합병증 등으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후 장기입원과 진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달한 후원금 275만5000원은 국제신문과 부산은행 등에서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이어 9월 25일 인제대 부산백병원 2층 로비에서 '제3회 환자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 병마와의 고된 싸움으로 지친 환우와 그 가족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성우원 합주부, 흙피리(오카리나), 붓다중창단, 예림어린이 병창단 등의 공연과 함께 사랑의 차와 떡 나눔 행사가 함께 마련됐다. (051)853-0429

박지원 기자



9월 25일 인제대 부산백병원 2층 로비에서 열린 '제3회 환자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실용신안특허의기술

복장용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C752-62009.10.511:6AM페이지1(1,1)

와불산 정상 표지석 설치

함양군 도움으로 정식명칭 지도에 올려

경남 함양 휴천면 견불사에는 아주 특별한 부처님이 봉안돼 있다. 전체 길이 4km, 해발 1161m 산 정상에 봉안된 부처님은 견불사 동쪽 지리산 자락에 나투어 도량 전체를 감싸고 있다. 바로 지리산 상내봉을 따라 이어진 천연와불산 능선이 전체로 불상인 것.



9월 24일 와불산 표지석 설치 후 보덕 스님의 모습.

견불사 주지 보덕 스님은 창건 당시 와선 중인 부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한 이 불상의 이름을 '와불산'이라 하고, 많은 불자들에게 무언설법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힘써왔다.

함양군의 도움으로 '와불산'을 정식 명칭으로 지도에 올렸고, 9월 24일에는 산 정상(해발 1161m)에 표지석을 설치했다.

보덕 스님은 "오탁악세에 중생들의 흐린 마음을 정화시켜 줄 천연와불이 훼손되지 않고 대대손손 전해질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와불산 표지석은 와불산의 목 부분에 위치하며, 노장대 함양 독바위를 거쳐 상내봉 쪽으로 이동시 볼 수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익산 국립박물관 승격 건의

전북의회, 고도 지정도시 중 익산 소외 강조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리모델링 계획이 공개됐지만, 지역의 국립박물관 승격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시 · 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장 최찬욱)는 9월 25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제148차 월례회를 열고 김병옥 익산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건의안'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했다.

또, '전라북도 시 · 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명의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건의안에는 그동안 미륵사지 발굴 조사로 2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고 국보급 사리장엄구가 발굴된 만큼, 익산 미륵사지의 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된 고도특별보존법에 의해 고도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등 4개 도시 중 익산만이 국립박물관이 없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불모지 포교사찰로 거듭

광산구 길상사 본존불 점안법회 봉행

광주불교의 불모지라 일컬어지는 광산구의 길상사(주지 도제)는 9월 26일 본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포교사찰로 거듭났다.

이날 법회에는 자경 스님(금봉사 주지)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자경 스님은 법문에서 "포교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절의 모든 대중들이 나서 부처님을 친견하듯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면, 그것이 참다운 포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길상사와 함께 송광종합복지관 관장 소임을 맡게 됐다. 대중들과 같이 발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불사 위한 열가지 조항 제정

남원 실상사, 10월 10일 '불사십조 잔치' 개최

바람직한 사찰불사를 위한 열가지 조항이 처음으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는 10월 10일 '실상사 선언 – 불사십조(佛事十條) 잔치'를 개최한다.

실상사는 2008년부터 바람직한 도량불사 세미나를 개최하며, 불사의 성찰과 방향과 제안, 불사에서 담아야 하는 21세기 시대정신 등을 고민해왔다.

'불사십조'는 네 차례에 걸친 도량불사 세미나를 통해 축적된 반성과 성찰을 모아 정기용 건축가의 제안으로 제정됐다.

'불사십조'는 △연기적 세계관의 불사 △생명살림의 불사 △공동체를 살리는 불사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 △대중적 협동의 불사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고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지속가능한 생태적 불사등 10가지이다.

재연 스님은 "한국 전통사찰의 모든 불사에는 불교의 기본적 세계관과 시대정신을 담아 오랫동안 아름다움의 맥을 이어왔다"면서 "요즘의 절 불사는 방향을 잃었을뿐더러 자칫 선조가 이룬 문화유산을 우리 세대에서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연 스님은 "잘못된 불사가 우리 역사 문화와 불교의 앞날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불사의 올바른 방향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실상사 불사를 실천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사십조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추석맞이 복운축제' 개최

고창군복지관, 다채로운 문화행사 열어



9월 29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복운축제 모습.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한가위를 맞아 9월 29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이강수 고창군수 등 400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09추석맞이 복운(福雲)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풍년을 기리는 고창초교 공연단의 진도북춤 공연과 여성국악그룹 다스름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장기 바둑, 윷놀이 대회와 고창경안어린이집 30여 원생이 참석해 짚으로 만드는 공예품 만들기, 전통연 만들기, 차(茶)나눔터, 떡메치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놀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공 스님은 "올 한해 농사일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만큼은 복지관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공연을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KT&G복지재단은 햅쌀(50포) 및 보행보조기(12대)를,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점은 추석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26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기쁨 풍풍 행복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는 경제적 · 심리적 · 정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저소득 위기가정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생활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마흔 세대가 동참한 이날 프로그램은 서로 편집장과 기자가 돼 가족의 자랑과 꿈 등을 소재로 가족신문을 만들고 빙고게임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무공 스님은 "최근 가족이 함께 보낼 기회가 부족해 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족간 대화캠프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가족간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가족캠프가 열려 눈길을 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광산중학교(교장 송양호), 나비채영상사업단과 함께 9월 25~26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1박2일 가족캠프카(스마일 패밀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심리 · 사회적 원인으로 학교적응능력이 떨어지는 광산중 재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간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 자녀간의 상호이해와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2010년까지 전체 12세대 가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가족이 함께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가족캠프, 사진촬영, 외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한 가족은 행사 전 과정이 영상으로 제작돼 가족간의 변화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송광종합복지관 관계자는 "6개월의 캠프진행기간 동안 부모-자식간 소통 결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신속한 개입을 할 것"이라며 12세대의 캠프참가 가족의 소통부족에서 오는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공동대표 법일 스님

"지구 '불교사상'으로 치유 합니다"

환경재단에는 환경파괴 정도에 따라 인류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환경위기시계'가 있다. 올해는 9시 33분이다. 이 시계의 12시가 되면 인류가 생존이 불가능한 시간이 된다.

최근 10년간의 사회운동은 환경운동이 주도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불교의 사회화와 대중화를 목적으로 창립됐다. 상임공동대표 법일 스님(완도 신흥사 주지 · 사진)은 이 단체를 이끄는 리더이다.



"불교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불교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불교적 사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중 환경문제는 지구적인 문제이자 앞으로 닥칠 현실의 문제입니다."

법일 스님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됐다.

현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2008년 4월 창립 후 1년 만에 많은 주목받는 사업들과 후원구조를 만들어냈다. 환경법회, 어린이 생태학교, 자비의 쌀나누기, 한지공예전 등 광주지역 불교활동가에게는 익히 알려진 사업들을 펴나가고 있다.

법일 스님이 처음부터 환경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어릴 때 출가를 했기에 사회적 관심이나 역사적 문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5 · 18 광주민중항쟁과 10 · 27법난도 겪었고요. 그때까지도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큰 변화는 1986년 중앙승가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하는 동아리가 있어 체계적으로 사회문제를 공부했다. 그때 공부한 것이 법일 스님의 중요한 가치관을 이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 후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광주지역 청년불자들이 환경운동을 통해 진보적 불교활동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스님은 현재 여러 개의 직함을 갖고 있다. 백양사 부주지, 완도 신흥사 주지, 완도 시민연대 상임대표, 장보고아카데미 대표 등.

요즘 법일 스님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장보고아카데미'이다.

장보고아카데미는 문화적으로 소외계층인 섬 아이들의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단체이다. 특히 백일장대회, 한문교실, 다도, 도예, 도시문화체험 등을 10여년 넘게 진행해왔다. 지난 여름에는 완도의 섬아이들과 같이 중국 산동지역 장보고유적답사를 다녀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의 섬지역은 불교세가 거의 없다. 여기에 지자체들은 종교편향이 끝이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에서 특히 호남의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스님의 역할이 더욱 빛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적 책임감도 커지더군요. 수행자의 본분대로 살아간다면, 어느 곳 어느 때나 당당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www.beomeo.kr

선찰대본산 범어사 개산 1331주년 기념

개산문예대제전

올해로 개산133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의상스님께서 금정산에 범어사를 창건하신 것은 나라를 위하고, 만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큰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상스님의 깊은 뜻을 오늘 다시금 되새기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기원하여 봅니다.

올해 개산문예대제전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박하고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대신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두가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가을 코스모스처럼 함박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기 2553년 10월 좋은날

범어사 주지 **정여** 합장

불기 2553(2009)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행사일정

내 용	일 시		장 소
개산대재	10월 10일(토)	15:00	대웅전 앞
산사음악회	10월 10일(토)	18:00	대웅전 앞
범어사 대웅전 단청문양 모사도 특별전	10월 10일(토)	16:30	성보박물관
청소년 및 가족 사진대회	10월 10일(토)	13:00	성보박물관 앞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사경	10월 11일(일)	10:00	대웅전 앞
전시 및 체험 (판매부스)	10월 8일(목) ~10월 11일(일)		지장전 앞, 성보박물관 앞
다도시연	10월 11일(일)	11:00	대웅전 앞 ((사)국제차문화진흥연구회)
		14:00	대웅전 앞 (범어사 다도회)
시상 및 회향	10월 11일	15:00	성보박물관 앞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5 FAX. 051)508-3229

남양주 봉영사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발족

"이웃 도와 자비실천 하는 것이 불자 사명"



경기도와 맺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일환으로 구성
지관 스님 "자리이타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 돌보길" 당부

봉영사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31명을 대표해 한 봉사단원이 '무한돌보미 자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자원봉사자로서 어려운 이웃의 고뇌를 덜어주고 행복을 베푸는 자비실천의 최일선에 서서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굳게 다짐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무한 사랑을 실천할 31명의 봉사자들이 보살행을 발원했다.

남양주 봉영사(주지 혜만)는 9월 26일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경기도 내 저소득민 돕기에 나섰다.

봉영사 신도들로 구성된 무한돌보미는 지난 7월 용주사(주지 정호), 봉선사(주지 인묵)와 경기도가 맺은 업무협약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봉영사 주지 혜만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 주변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무한돌보미'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과 함께 발대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지금부터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차근히 있는 힘껏 밀고 나아가고자 한다. 각계 관계자들과 봉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봉행사에서 "무한돌봄 사업은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해 희망과 재활을 안겨주는 뜻 깊은 일"이라며 "교구 지역 내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경기도와 힘을 합치면 더욱 좋을 것 같아 협약을 맺었다. 오늘을 좋은 출발로 삼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정부 지원 기준에 미달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주위에 많다. 이 제도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서 시 · 도 · 동 사무소나 주지스님, 종무소에 알리면 우리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앞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수계법회 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발대식에서 "내 씀씀이는 절약하고 타인에게는 인색하지 말되 이웃을 십시일반으로 돕자. 오늘 보살계를 받을 때의 마음인 자리이타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에 관심가지고 돌보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보살계 수계법회 및 무한돌봄 자원봉사 발대식'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제25교구 본 · 말사 스님들, 조계종 계단위원 무관 스님, 이석우 남양주시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순희 무한돌보미 자원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31명으로 구성된 봉사자들은 봉영사 3000여 신도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 도 · 시청 및 교계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봉영사 (031)571-0555, 경기도 무한돌봄 콜센터 031-120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보살계 수계법회 및 자원봉사 발대식에는 지관 스님을 비롯해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 무관 스님, 김문수 경기도 지사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위).

무한돌봄 자원봉사 단원이 위촉장을 전달 받은 뒤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 봉영사 주지 혜만 스님(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비이원론적 사고 '분쟁 끝내는 열쇠'"

뉴욕주립대 뉴스레터 9 · 10월호 '몸 · 몸짓의 논리' 영문판 2면에 걸쳐 다뤄

미국 불교학계 원로이자 美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동양학과) 중진교수로서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려온 박성배 교수(76). 노교수의 일생을 회향하는 대작인 불교철학 에세이집 <몸 · 몸짓의 논리>는 2007년 국내판 출간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다.

최근 美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북스토어 뉴스레터 9 · 10월호(이하 뉴스레터)에서 박성배 교수와 저서 <몸 · 몸짓의 논리(The Mom/Momjit Paradigm)> 영문판(뉴욕주립대 출판부 刊)을 2면에 걸쳐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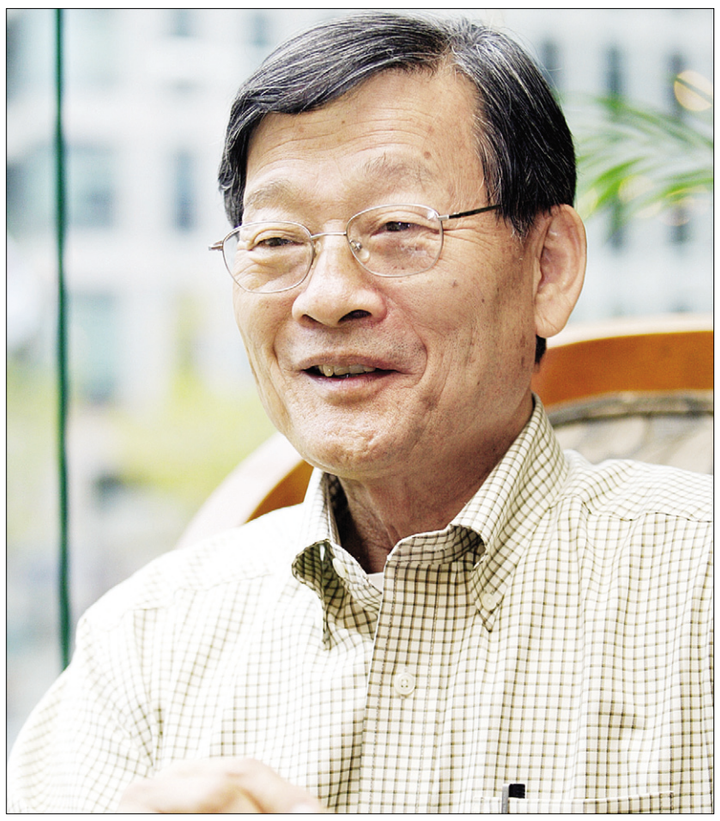
뉴스레터는 "한국불교를 새로운 시각인 몸-몸짓의 패러다임으로 소개하는 책이 영어권에서 발행됐다"며 "박 교수의 이번 책이 신선한 이유는 성철 스님 상좌로 3년간 출가했었고, 미국에서 한국학과 불교학을 가르쳤으므로 한국 불교권과 영어권의 양쪽 세계에 실질적 경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박성배 교수는 제1장에서는 몸-몸짓을 정의하고 본질과 현상, 체와 용이라는 두 개 차원이 인간의 삶에 공존함을 말했다. 제2장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몸-몸짓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도구로서 화두선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다른 가르침으로서 원효의 <대승기신론> <금강삼매경> <금강경> <육조단경>, 지눌과 유교 등을 소개했다. 현재 생활에의 적용을 다룬 제4장에서는 문자문화와 무문자문화, 수행의 단계들을 말했다.

박 교수의 '몸-몸짓 패러다임'은 불교의 체용론(體用論)을 쉽게 풀이한 것으로 이해된다. 박성배 교수는 "체는 본질적으로 내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체가 움직여 일을 하는 면을 용이라고 한다. 용은 현상적이고 외적이며 눈에 보인다. 이 체용은 불가분의 불이적 관계에 있다. 편의상 체와 용을 몸과 몸짓으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몸이 움직여 일을 하며 드러나는 것이 몸짓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몸짓 뿐이지만 둘은 원래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 '몸-몸짓 패러다임'을 연장 적용하면 오래 전 나와 전체의 구분이 없었던 동양사회처럼 평화롭고 수준 높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박성배 교수의 '몸-몸짓 패러다임'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1965년 7월 31일 대학생불교연합회 구도부 학생 13명과 문경 김용사에 갔던 박 교수는 3000배도 모자라 산 정상까지 등산을 다녀오고 나서야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2007년 <몸 · 몸짓의 논리>에 이어 최근 영문판을 발간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박성배 교수(美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는 스님에게 구도부가 당면한 어려움의 원인을 상담했고, 성철 스님은 단 한마디의 말로 명쾌하게 대답했다. "눈이 용(用)에 쏠려 있구나(You are attached to momjit)."

박 교수는 "현대인에게 화두선 만한 좋은 수행은 없다"고 주장했다. "화두를 들고 있는 동안은 애쓰지 않아도 삼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오계를 지킬 수 있으며, 공리적 동기에 휘둘리지도 않고, 6개 감각기관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주의 '무(無)'자 화두에서 '왜 무라고 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성 바오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일화와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성 바오로는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인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 예수의 비전에 감동 받아 그리스도교의 대변인이 됐다.

박성배 교수는 "수행자에게는 오직 화두의 의문만이 있을 뿐 깨달음의 문제는 안중에 없다. 이런 진실한 마음은 개인의 모든 시스템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로 인해 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불교용어의 잘못된 영역을 강하게 지적했다. "<육조단경>의 '무념(無念)'이 'no thought'로 번역된 것은 잘못이며, '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가 아니라 인간의 일상적인 사고법인 이원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주체와 객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무념은 이원론의 '무'를 얻어 수행자를 부처의 생각과 맞추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성배 교수는 "무념=이원적 생각이 없음=부처의 생각"이라며 "무념은 생각이 없다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몸짓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배 교수는

한국전쟁 중 불교를 만난 박성배 교수는 현재 美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고 소장도 겸하고 있는 박 교수는 매 강의마다 학생들에게 '사고하는 법'을 강조해서 가르치기로 유명하다. 그는 학생들에게 '비이원적' 사고를 하는 법,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자신의 생활에 실천하는 법을 가르친다.

1933년 9월 21일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박성배 교수는 작은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소위 '자연교육'을 통해 공동생활과 자비의 실천을 배웠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주변 사람들을 잃은 그는 의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진정 배우고 싶은 것은 인문학, 그중에서도 부처, 예수, 모하메드, 공자 등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 교수는 조계종에서 출가해 수행을 시작했다. 두 번의 출가와 환속, 도미 후 신학대학 재학, 다시 불교 공부로 이어진 그의 일생은 성철 스님 상좌라는 타이틀 이전에 재미불교학자로 현대불교학의 산증인임에 틀림없다.

1955년부터 2년 동안 대흥사에서 전강 스님의 지도로 참선 수행했다. 1956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철학과에 들어가 1960년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63~1969년 동국대 교수를 지냈다. 1966년 봉은사에서 대학생 수도원을 설립해 지도 교수를 맡았고, 1966~1968년에는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 지도로 참선 수행했다.

박성배 교수는 1969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직을 돌연 사직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40대 늦깎이 유학에, 낮에는 노동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보며 고된 생활을 했다. 주경야독의 생활을 하며 그는 1971년 텍사스 남감리교대에서 석사학위를, 1977년 버클리대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교수는 동국대 교수 자리를 버리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머물고 있는 이유를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서양인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알리려면 그 나라 종교부터 먼저 알아야했다"고 말했다.

박성배 교수는 불자들에게 이원론적 사고를 여읠 것을 당부했다.

"비이원성 즉 불이(不二)는 '분쟁을 끝내는 열쇠'입니다. 그러려면 두 개의 존재가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사려 깊어야 합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체계적인 불교의례 연구 첫 발

청매의례문화연구원 9월 28일 개원 현판식

불교의례 전문 연구기관인 청매의례문화연구원(원장 미등 · 조계종 기획국장, 이하 청매연구원)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은 9월 28일 서울 마포구 토정동 사무실에서 개원식(겸 현판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前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승원 스님, 종회의원 정광 · 일관 스님, 조계종 총무국장 혜경 스님, 재무국장 원철 스님 등 3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축사에서 "불교의례의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면서 "청매연구원이 체계적 의례연구의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등 스님은 "학술적 연구라는 연구원의 기본기능을 비롯해 의례의 의미 상징성에 대해 보급 · 계도 · 계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 미등 스님.

청매연구원은 △불교관련 무형문화 연구 △의례문과 의궤집 연구 △의례관련 세시풍속 연구 △각종 학술대회 개최 △연구논문집 발간 △연구인력 양성 △연구된 의례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교계 안팎의 108인이 발기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승인을 마쳤던 청매연구원 이사로는 무상 스님(前 봉은사 주지, 現 광덕사 주지), 정안 스님(중앙승가대학교 법인사무처장), 정광 · 승원 스님 등이 참여 중이다. 조동섭 기자

"연등회 계승해 연등축제 발전"

조계종 문화부 9월 25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열리는 연등축제(연등회)는 불교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제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군중이 연등축제에 참석하고, 해마다 수만 여 외국인이 연등회를 찾는다. 보다 많은 대중을 연등축제에 참여시키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려면 고려 · 조선시대 열리던 연등회의 전통을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등회의 문화재적 가치와 한 · 중 · 일 연등축제의 비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 열리는 연등회는 불교 전래 이전의 사상이 습합된 민속축제"라며 "깨달음을 중시하는 선종 중심의 조계종이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연등회 등 의식 또한 포교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김용덕 한양대 교수는 '연등회의 문화재적 가치와 세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또한 △전경욱 고려대 교수-연등회의 전통과 현대축제화의 방안 △소방 북경사범대교수-현대 중국의 등회 △하야시 마시히코 메이지대학 교수-일본의 등롱과 관련한 민속행사 △백창호 한국전통등연구원-전통 등 문화의 특징과 새로운 전망 △서연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연등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이 발표됐다.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이날 발표자들은 "연등축제가 세계화된 축제로 발전하려면 연등회의 전통을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조계종은 연등축제의 문화재 지정 및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연등회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동섭 기자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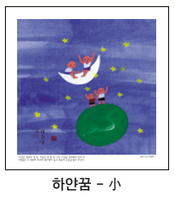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좌선은 몸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앉아 있는것”





그림 · 최문정

혜암이 있는 문수암으로 찾아간 성법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자는 혜암에 겁이나
삼일째 되는 날 ‘거짓말’하고 해인사로 돌아가

강원에서 겨울을 보낸 성법은 바랑에 겨울양말 한 켤레를 넣고 지리산 문수암으로 향했다. 어느 신도가 해제 날 대중공양으로 강원 학인들에게 한 켤레씩 나눠준 겨울양말이었다. 성법은 자신이 신기보다는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은사 혜암스님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성법은 버스를 타고 함양으로 갔다. 버스가 함양에 도착하자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다. 성법은 함양에서 다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마천에서 내렸다. 지리산은 이미 설국으로 변해 있었다. 성법은 시골 촌부들에게 물어서 영원사 초입까지 눈길을 걸어갔다. 그곳에서 가파른 지름길을 타야만 상무주암을 거쳐 문수암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성법은 영원사 가는 길에 형성된 마지막 산촌마을을 찾아들어 길을 물었다.

“문수암은 어디로 갑니까.”

마침, 집 주인은 영원사나 문수암으로 가는 우편물을 집배원에게서 받아두었다가 스님이 오면 전해주는 촌부였다. 집 주인 촌부가 놀랐다.

“스님, 오늘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눈이 오는 데다 날이 곧 어두워집니다. 고무신을 신고 산에 오르다니 위험천만합니다.”

“거사님, 저는 산길을 잘 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법이 완강하게 산길을 오르겠다고 하자 촌부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스님이 올라가겠다고 하니 별 수 없습니다만 산길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법은 오직 혜암스님만 생각하고 있었다. ‘참선공부만 하는 수좌스님’이라는 데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출가한 이후 등을 방바닥에 한 번도 대지 않는 장좌불와 수행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신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그분은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성법은 여러 가지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문수암에 도착하여 혜암스님을 친견하고 싶었다.

눈 쌓인 산길로 들어선 성법은 쉬지 않고 올라갔다. 밤이 되자 다행히 눈발이 그치고 있었다. 손전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법은 부처님 가피라고 믿었다. 밤하늘에 관세음보살 얼굴처럼 둥그런 달이 뜨고 있었다. 달빛은 눈 덮인 산길을 더 환하게 했다.

성법은 무서운 생각이 들면 〈반야심경〉을 큰 소리로 독경했다. 〈천수경〉도 외웠다. 그런데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상무주암이 나와야 하는데 산길은 끝이 없었다. 눈길에 무릎까지 빠지곤 했다. 지리산 정상으로 갈수록 눈이 더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성법은 오던 길을 되짚으며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내려갔다. 눈과 땀으로 젖은 장삼에는 살얼음이 끼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턱이 떨릴 정도로 추웠다. 다리에 힘이 빠지자 자꾸 넘어졌다. 고무신도 얼어 조금만 잘못 디뎌도 발바닥이 미끄러졌다. 그제야 동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성법은 살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산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 데까지 뛰듯 내려갔을 때는 기진맥진했다. 바랑에 든 양말 한 켤레가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웠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들어 바랑을 벗어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바랑을 벗을 수는 없었다. 그 안에 혜암스님에게 선물할 겨울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어서였다.

성법은 겨울양말을 신고 있는 혜암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 혜암스님이 양말을 신고서는 웃고 있었다. 성법은 갈증 난 목을 눈으로 적시며 산길을 올라갔다. 마침내 상무주암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문수암 불빛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상무주암 뒤편으로 뻗어 내려온 능선 너머에 문수암이 숨어 있기 때문이었다.

성법이 문수암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쯤이었다. 암자 마당 앞으로 가 합장하며 혜암스님을 불렀다.

“큰스님.”

그러나 조용했다. 눈 속에 갇힌 암자는 말 그대로 적막이었다. 부엌 뒤편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큰스님께서는 불을 때고 있을지 모른다.”

성법은 중얼거리며 부엌 쪽으로 갔다. 과연 혜암스님이 부엌문을 열어놓은 채 불을 때고 있었다. 성법이 인기척을 냈지만 혜암스님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아궁이에 썩은 나뭇가지를 넣고 있었다. 화부처럼 불을 때고 있었다. 갑자기 도깨비처럼 나타난 성법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을 뿐더러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성법은 말 한 마디 없이 불만 때는 혜암스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도인은 저러는가 싶어 혜암스님이 야속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산길이 아니었다. 천근의 바위덩어리와 같은 무게를 느끼면서 가지고 온 겨울양말 한 켤레가 자신을 다독였다. 문득 성법은 스스로 묻고 답했다.

‘그래, 나는 단 몇 시간 눈길을 헤맸지만 은사스님은 이 엄동설한에 기운 여름양말을 신고 정진하고 계시지 않은가. 내가 지금 은사스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듯 바랑 속에 든 따뜻한 겨울양말을 신겨 드리는 것이다.’

성법은 혜암스님이 불을 다 땔 때까지 부엌문 밖에서 기다렸다. 지리산의 차가운 골바람이 어깨를 얼게 했지만 견디었다. 그러고 보니 혜암스님이 자신의 근기를 시험하는 것도 같았다.

‘은사스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인욕바라밀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말씀 없는 가운데 말씀을 하는 무설설(無說說)의 법문이리라.’

삼십 분이 지나갔다. 성법은 석등처럼 꿈쩍 않고 기다렸다. 이윽고 혜암스님이 아궁이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고는 일어섰다. 성법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합장했다.

“스님, 해인사에서 온 성법입니다. 스님께 이미 사미계를 받았으나 처음으로 친견합니다.”

그래도 혜암스님은 아무 말도 않고 부엌을 나와 인법당으로 들어갔다. 오라 가라 말은 없었지만 따라 들어오라는 느낌이 들어 성법은 인법당 토방에 고무신을 가지런히 벗었다. 눈이 다시 희끗희끗 내렸다. 거친 골바람에 눈송이들이 마루로 쫓겨 들어왔다.

성법이 정식으로 삼배를 하자, 그제야 혜암스님이 말했다.

“참선을 해야 산 중이지.”

혜암스님이 장좌불와를 하기 때문에 성법도 잠을 자지 못했다. 혜암스님은 가만히 앉아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제자에게 밤새 설법을 했다. 성법은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설법을 들었다.

“.....이 공부는 세상공부와 아주 다르다. 세상의 공부는 눈으로 하고 귀로 하고 코로, 입으로, 몸으로, 또 번뇌 망상으로 하는데 이 공부는 그 반대로 한다. 이 공부는 상대가 끊어진 무심공부이기에 지금까지 알았던 일도 다 잊고, 심지어 부처님 말씀도 다 버려야 된다. 전에 알았던 것을 조금만 들썩거려도 병이 되고 결국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묘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공부하고 달라서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없어서 재미도 없다.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길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뚤어지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다. 길을 기웃거리면 고생만 하지 이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져버린다.

답답한 한 군데를 잡아 ‘이뭣고’를 공부하되, 욕심내가지고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몸에다 힘을 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병이 난다. 몸에다 힘을 준다 던지 욕심 사납게 빨리 깨쳐야지 하고 공부하는 것은 헛공부일 뿐, 이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용맹스럽게 화두공부하라고 하니까 막 힘부터 내는데, 그것은 간절하게 정성껏 하라는 말이지 힘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미묘법(微妙法)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는 묘하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혼자서 하다가 병이 나는 사람이 많다. 아주 간절한 생각, 정성스런 생각으로만 할 따름이지 급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답답한 데에 대고 이뭣고, 하고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 이 말은 답답한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답답한 데다 이뭣고 하라는 것은 딴짓거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좌선이란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욕심만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일을 다 알게 되는 숙명통을 얻는다. 욕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없다면 참선공부를 안 해도 숙명통을 얻는다.”

성법은 밤 11시 반부터 다섯 시간 동안 설법을 들었다. 얼었던 몸이 저절로 녹았다. 그러나 접힌 무릎은 감각이 다시 무뎌졌다.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 다리운동을 할 수도 없었다.

어느 새 창호에는 푸른빛이 돌고 있었다. 성법은 겨우 말을 꺼냈다.

“스님, 아침공양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공양을 하지 않으니 너나 먹거라.”

성법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양식은 혜암스님이 먹는 솔가루와 쌀가루가 있고, 이따금 스님들이 찾아오는지 곡식 통에 보리쌀이 조금 차 있었다. 반찬거리로는 새끼줄에 시래기 묶음이 달려 있고, 냄비에는 멀건 된장국이 조금 남아 있었다.

잠시 후 혜암스님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다.

“아침공양을 왜 하지 않느냐.”

“낮에 먹겠습니다.”

성법은 배가 몹시 고팠지만 아침공양을 하지 못했다. 시래기와 찬 된장국을 보는 순간 입맛이 싹 가셨던 것이다. 성법은 돌샘에서 나오는 찬물만 한 그릇 비웠다. 찬물이 빈 뱃속을 내려가며 쪼르륵 소리를 냈다. 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지게는 암자 뒤에 있다. 아침공양 때가 지났으니 나무를 하러 가야지. 여기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공부한다.”

순간 성법은 눈앞이 아찔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자는 혜암스님의 말에 겁이 더럭 났다. 그러나 혜암스님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성법은 지게를 지고 눈 쌓인 산길을 걸어갔다. 혜암스님과 반대로 상무주암으로 가는 길로 갔다. 상무주암은 문수암과 달리 먹을 것이 풍부했다. 성법은 상무주암에서 보살이 주는 떡과 라면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나 밤에 잠자지 않고 공부할 것을 생각하니 배는 부르지만 소화가 되지 않았다.

‘배고픔은 상무주암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은사스님 앞에서 어찌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혜암스님을 1주일 정도 시봉하고 강원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문수암에 왔지만 성법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다. 이틀째를 맞이하는 밤에도 성법은 초저녁부터 밤 12시까지 혜암스님의 설법을 들었다. 졸음이 쏟아져 무릎을 꼬집으며 견뎠다. 인법당에서 마주앉아 좌선하고 있으니 꾀를 낼 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성법은 삼일째 되는 날, 아침에 보리쌀밥을 해 먹은 뒤 혜암스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스님, 오늘은 해인사로 돌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어서 가봐야지.”

혜암스님은 성법의 발걸음을 붙들지 않았다. 차비 삼천원을 주면서 문수암을 떠나라고 했다.

<계속>

> “누구나 욕심만 없으면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를 알게되는 숙명통 얻는다.
> 욕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없다면 참선공부 안 해도 숙명통을 얻는다”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벽산 원각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5

세월을 탓하지 말고 정진하라

[원문]
一念普觀無量劫 (일념보관무량겁)
無去無來亦無住 (무거무래역무주)
如是了知三世事 (여시요지삼세사)
超諸方便成十力 (초제방편성십력)
–강화도 전등사 약사전

[번역]
한없이 긴 세월도 한 생각 안에 있어
오고 감도 머무름도 역시 또한 없네.
이와 같이 전생과 현생 미래의 일 모두를 알 수 있다면 모든 방편을 뛰어 넘는 부처님이 되리.

[선해(禪解)]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지 벌써 6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지난 9월 26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옛날 청소년이었던 두 형제가 백발이 되어 다시 만났다. 나는 이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새삼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만나고 또다시 긴 이별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인간사에 있어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이별이다. 하물며 살아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생이별은 더 큰 슬픔이다. 생사(生死)를 알지 못하는 가족의 이별은 평생을 가슴속에 한을 품고 산다. 그런데 누가 이런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는가?

엄밀히 따지면, 이는 남북한도 아니고 바로 정권욕에 불탔던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다. 그의 야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동족이 죽었으며 또한 생이별을 해야 했다. 지금도 휴전선 너머 가족과 생이별 한 채 수십 년간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다.

그런데 김일성이란 이름은 오래전부터 사라진 지 오래이며 그 대신 그의 아들인 김정일이 우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이대로 또 10년이 흐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한을 품고 죽을 지도 모른다. 세월은 상처의 흔적을 잊게 하는 힘이 있다. 때문에 세월은 그들이 저지른 만행의 흔적조차 사라지게 할지 모른다.

이미 20~30대 오늘의 세대는 전쟁이 있었는지 그 존재조차 잊었으며 과거, 북한이 저지른 만행조차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북한에게 동조하기까지 한다. 동족이어서 우호적인 태도는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 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수공(水攻)을 저질러 6명의 국민을 죽게 하고, 또 이면(異面)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는 그들의 인면수심(人面獸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이던 과거의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교종단에서는 6. 25로 인해 폐허가 된 북한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있는 신라시대의 사찰인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현대아산과 연계해 복원을 해 준적이 있었다.

신계사는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와 함께 금강산의 4대 사찰로 꼽힌다. 또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북한의 사찰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수공(水攻)과 남북 이산가족을 보고 우리 불교계는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과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하루 빨리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강화도 전등사다. 이곳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아도(阿道)가 창건한 유서 깊은 곳이다. 아도는 당시 적국(敵國)이었던 신라에게 불교를 전한 인물이다. 그는 신라인으로 첫 번째 신도가 된 '모례'의 집에 숨어 살면서 포교를 하여 신라시대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 피운 사람이다.

당시 절의 이름은 진종사(眞宗寺)였는데 이후 고려 때와 조선시대를 거쳐 계속적으로 중창한 사찰이다. 이후 고려 충렬왕(忠烈王: 재위 1274~1308)의 비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이 절에 옥등(玉燈)을 시주한 데서 비롯되어 전등사로 바뀌게 되었다. 전등사는 그래서 한국불교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절이다.

이곳에 있는 약사전은 조선시대 때 지어진 건물로서 건축술이 돋보이는 보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보관된 현왕탱은 보물 제179호로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심판하는 현왕과 그 권속을 도상화한 것인데 조선 고종 21년(1884)에 제작된 그림으로 현왕도의 도상(圖上)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점 등에서 19세기 불화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여기에 적혀 있는 주련은 한편의 선시(禪詩)처럼 매우 뛰어나고 아름답다. 그러나 힘 있고 단아한 주련의 글씨는 몇 번의 전쟁을 걸친 터라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다.

'한없이 긴 세월도 한 생각 안에 있어/ 오고 감도 머무름도 역시 또한 없네.'

요즘,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체감하고 있다. 세월은 이렇게 한없이 흘러가지만, 자연은 천년의 역사를 고이 안으로 품고 있다. 어찌 보면 역사란 한 생각 안에 고여 있으며 인간의 삶 역시 오고 감에 머무른 바가 없다. 말하자면, 천년의 역사도 한 생각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삶도 덧없음을 이르는 선구(禪句)라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도 일찍이 인간의 생사(生死)에 대해 '오고 감의 머무는 바가 없다'고 하셨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전생과 현생 미래의 일 모두를 알 수 있다면/ 모든 방편을 뛰어 넘는 부처님이 되리.'

승가(僧家)에서의 선(禪)은 부처님의 삼처전심(三處傳心)이요, 불립문자(不立文字)이다. 그윽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깨닫는 게 곧 선인 것이다. 인간의 삶은 결코 그 선을 뛰어 넘지 못할 뿐더러 전생, 현생, 미래의 일 또한 알지 못한다.

억겁의 시간도 깨닫고 보면 한 찰나에 불과한 것
삼독심 버리고 현재에 지극하면 올바른 수행 가능

더구나 인간은 눈앞에 일어날 일조차 알 수가 없다. 때문에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만일, 인간이 삼세(三世)를 능히 알 수 있다면 방편을 뛰어 넘어 부처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무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안의 행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욕망), 진(화냄), 치(어리석음) 삼독(三毒)을 버려야만 한다. 이러한 삶의 이치를 능히 깨달을 수 있을 때만이 마음속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벨기에의 문학자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희곡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다. 어느 날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찾아 달라 한다. 두 남매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멀리 여행의 길을 떠나 죽음의 나라와 과거의 나라를 빙 돌아다니고, 두루두루 편력을 한다.

하지만 아무 데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파랑새는 자신의 집에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처를 밖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진불(眞佛)은 법당이나 선방, 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심(自心)안에 있다. 바로 내안에 부처가 있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5

견성 한 후 법을 설하라

[원문]
但不見性人 讀經念佛 長學精進 六時行道 長學坐不臥 廣學多聞 以爲佛法. 此等衆生 盡是謗佛法人. 前佛後佛 只言見性. 諸行無常 若不見性 妄言我得阿菩提 此是大罪人. 十大弟子 阿難多聞中得第一 於佛無識 只學多聞.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염불을 하며, 오래도록 배우고, 정진하며, 하루 여섯 차례 예불을 하고, 오랫동안 눕지 않으며, 두루 배우고, 널리 들으며, 많이 아는 것을 불법으로 아는데 이런 중생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니라.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오직 견성(見性)만을 말씀하셨는데, 성품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망령되이 '나는 위없는 큰 도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아주 큰 죄인이니라. 십대제자 가운데 아난이 가장 많이 알고 널리 배워서 식견이 제일이었으나 부처님께서는 성문들로 하여금 도(道)에 벗어나게 하여 무식하게 만든다고 책망을 하셨느니라."


왕일정 그림, 오창석 제(題) '달마도'.

[해설]
달마 스님은 우주의 근본 실상이 마음으로 된 도리를 모르고 불법을 행한다 함은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만큼 참된 불법 만나기가 어렵단 말씀입니다. <천수경> <반야심경> 외운다고 불법 만난 게 아닙니다. 눕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장좌불와(長坐不臥)라고 하는데, 성품을 보지 못하면 장좌불와를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불교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도 불교를 비방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이니 빌 대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형상에 집착을 하니 "쇠로 된 불상은 용광로를 지나지 못하고, 흙으로 된 불상은 물을 지나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불상은 불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절을 하더라도 우주의 근본, 모양이 없는 그 자리를 향해서 절을 하셔야 됩니다. 법당의 불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들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초월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타종교에서 '우상 숭배다', '미신이다', 어떤 분들은 '마귀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마귀를 믿는 분들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불상에 왜 절을 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근본교리 가운데 삼법인(三法印)의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의 가르침을 알면 어떤 것이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증명했듯이 모든 물질은 원자 차원에서 일초에 99억 번을 진동하고 있으니 시간성, 공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향해 절을 하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우상숭배요, 미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교는 대상이 없습니다.

불교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불교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신(神)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신론도 아닙니다. 신중(神衆)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그 분들한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방편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행을 할 때 정도(正道)로 가는 것 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성품으로 보고 십분 정진한 것이, 성품을 보지 못하고 평생 장좌불와를 한 것보다 낫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우주의 근본 실상, 하나의 마음으로 된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간화선 수행은 그 자리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육조혜능 스님까지 가르침은 이해를 전제로 하고(理入) 닦아 나가는 수행법입니다.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오직 견성(見性)만을 말씀하셨다.'

미륵부처님, 아미타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중생들은 본래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까 견성할 수 있는 길만 일러 주셨습니다. 어떤 부처님이 온다고 해서 우리를 부처로 만들어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증상만(增上慢)으로 큰 업이 된답니다.

십대제자 가운데 아난 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모두 기억을 했답니다. 아주 총명한 분이셨습니다. 법문을 듣고 성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부처님께서는 "너는 도리어 성문들을 도에 벗어나게 만들고 무식하게 만드니 하지 말아라"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무나 법을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을 보지 못하고 법을 설하는 것은 상대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부처님도 속이는 일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중국 육조사(육조선원) 지구본원 선원장 모집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육조선원)에서는
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는 선불교 사상과 정통조계선풍의 법맥을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님과 청정수행도량인 육조선원(분원, 명상센타)를
운영하실 스님 및 재가불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
★선 원 장 : 학력 및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로 자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분으로 수행도장 여건을 갖추신 분
★문 화 원 장 :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정신수행에 관심있는 스님, 의사, 약사, 교사출신이나 일정한 수행 경력이 있는 분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사본1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 연 락 처 :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소재)
TEL : 033)761-7008 033)761-2556
FAX : 033)761-3200 HP 011-285-6800

◈ 서울 문 화 원 : TEL : 02)766-6800 02)720-6363
FAX : 02)720-6340 HP 010-4176-5623

◈ 경기 문 화 원 : TEL : 031)574-1108

◈ 부산 육조선원 : TEL : 051)403-1375

※ 본 중국육조사 한국본찰 용화사 방장 석 연화 스님은 한국불교의 암담한 현실과 세계불교화에 뜻을 두고 중국 숭산 소림사 제자로 득도 수계 후 수행 중 지난 2008년10월11일 중국 광동성 육조사 (대원 방장)와 한.중 불교 선 문화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발을 전수 받았으며, 양국 사찰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2008년 12월28일 중국에서 천 년 만에 재현된 육조제를 한국에 유치 봉행위원장으로, 2009년 5월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회 육조제를 봉행하였고 5월24일 불교 TV방송 "열린마당" 프로에 육조사 대원방장님과함께 특별출연 한 • 중선불교문화와 양국불교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6월 5일에는 다시 육조사를 방문 육조사 한국 본찰용화사 방장으로 임명 받았고 한국 육조 법맥의 수법 및 전권대표로 중국 육조사 전법중심인 육조선학원원장에 추가 임명 되었으며 지난 9월14일에는 육조사 대원방장님의 초청으로 중국 호남성 홍강구 선 불교문화 축제에 참가 대흥사 옥관음불점안 법회에 증명법사로동참하여 9월 17일에는 육조사 혜능대사 성상이 모셔진 육조전 에서 거행된 전법 수계식에서 육조사 한국 제자로 수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 2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란
불교 상 • 제례 관련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사찰, 신행단체에서 상가봉사활동과 불교상례를 지도할 실무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교육받아 상 • 제례 업종에 진출하게 되는 전문 직종입니다.

● 교육기간 : 2009. 10. 24 ~ 2010. 3. 27 (6개월 과정, 총 108시간)
● 모 집 : 주간반 40명, 저녁반 40명
● 강 의 : 주간반(토) 오전10~오후3시30분
저녁반(토) 오후3시30분~오후9시
●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3호선 안국역 6번출구(조계사옆)
-1호선 종각역 2번출구(조계사옆)
● 등 록 금 : 60만원(교재,실습비,현장학습 포함)

● 교육내용
- 불교 상 • 제례 이론과 실습
- 불교장례 관련시설 현장학습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 상조문화와 외국장례
● 수료후 진로
- 사찰 • 신행단체 상가봉사활동, 운영관리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관리자
- 장례행사, 회원관리, 홍보활동 등
- 장례관련업체 진출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 발급 ◆

● 교수진 :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출강 교수
- 불교 상제례 실습 : 유재철 - 큰스님들 (법장, 숭산, 석주 외) 장례와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진행함
- 불교 상제례 이론 : 순남숙 박사 - (사)한국생활문화연구원 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참여
- 불교의례, 천도재 : 구미래 박사 - (사)성보문화재연구원 기획실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39-4444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17>

자유방임은 오해, 경제에 걸맞는 법 · 사상 필요

'정의의 법' 범하지 않는 한도서 자유롭게 이익 추구해야

18세기 말 근대 유럽 사상의 토양 위에 탄생한 아담 스미스(1723~1790)의 경제학은,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21세기 초에 이르러 마침내 동양사상을 받아들여 그것과의 융합을 도모하지 않으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실은 스미스의 <국부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당시의 중국이나 일본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스미스와 동양과의 기이한 인연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스미스는 장차 자신의 경제학과 동양사상과의 융합 시기가 오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농촌과 전원생활에 관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시골의 아름다움, 전원생활의 즐거움, 그것이 보증해주는 마음의 평온함….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땅을 경작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운명지어진 것인 만큼 인간생활사의 온갖 관계 속에서도 이런 원시적인 직업에 대해 애착하는 마음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스미스의 이러한 지적처럼, 전원이 갖는 비시장적 가치는 녹색 성장시대를 맞아 점점 더 중요해져 갈 것이다.

그런데, <국부론>의 핵심은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사적 이익의 추구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이익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주장한 점이다. 동시에 스미스는 자유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스미스는 이기심과 자유경쟁을 강조했기 때문에, 스미스 즉,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주장자라는 이미지가 고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오해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스미스는 그의 저작 중 어디에도 '자유방임(laissez-faire)'을 중점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J. M. Keynes)는 '자유방임의 종언'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자유방임이라는 말은 아담 스미스의 저작 중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논술하고 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미스는 무한정 제멋대로 사는 '이기심' 즉, '사적 이익의 추구 행위'를 권장하고 정당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리 추구를 행함은 정의의 법을 범하지 않는 한'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버블경제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행위나 공무원의 부정행위와 같이 파렴치한 이기심에 기초한 자유경쟁내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정의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의 경제행위를 권장한 것이다.

스미스의 경제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경제인'은 '도덕심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경제와 도덕(moral)과는 스미스 경제학에 있어서 모순이 아니라 조화(調和)이다. 그의 <국부론>은 그러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요컨대 스미스 경제사상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동체(또는 공화국)가 평화롭게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것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정의의 유지 보전 이라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유지 보전하는 것으로서 법이 있으며, 법의 파수꾼으로서 재판관이 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정말로 엄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엄격성이라는 것이 정의와 평등한 인권을 지키는 덕(德)의 기본인 것이다.


그림 · 김필헌

그러면, '경제 행위'라는 것은 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일까? 스미스에 따르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둘째로, 경제의 세계에는 '절제의 미덕'이라는 덕성이 존재한다. 낭비는 덕이 아니다. 아무 소용도 없고 비생산적인 것에 노력을 증가하는 것도 덕은 아니다. 때문에 경제의 세계에는 합리적인 계산과, 배려와 신중한 예측이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로, 이기심은 정의의 한계 내에서 발휘되지 않으면 안되며, 경제인의 활동은 전체적으로 국가사회의 번영에 도움이 되도록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의 세계'라는 것은 무법자의 세계도 아니려니와 덮어놓고 무조건 자유방임의 세계도 아니다.

이상의 정의의 법 혹은 도덕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손'이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사적 이익의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순조롭게 사회적 이익을 촉진하고, 국부인 GDP를 증대함과 동시에 국민의 행복도 증진할 수 있다고 스미스는 믿었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의 틀에서 모순이 아닌 조화로운 경제사회를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낙관론에 서 있었던 것임은 말할 필요 조차 없다.

그러나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는 조화가 아니라 커다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화, 공업화의 진전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이익의 증대로 결부되어 나가야 하지만, 마침내 지구 규모의 환경파괴를 진전해간다. 그렇다면, 지구환경시대의 '정의의 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공정 · 절제의 견지, 자연 · 환경의 보전 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오늘날의 경제인으로서의 도덕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지구환경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생각했던 당시 산업혁명시대의 문제는 물론 오늘날의 지구환경시대의 절박한 상황과는 다르다. 따라서 스미스는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지구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스미스의 책임은 아니다. 18세기의 스미스의 시대에는 시대정신이 거기까지 추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설파한 '정의의 법'이나 도덕이 지금도 역시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 탐욕의 버블경제하에서 횡행하는 배금주의가 모순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그런 느낌이 깊어지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소비자 주권은 바로 이 정의의 법이나 도덕위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스미스의 정의의 법이나 도덕으로부터 곧바로 지구환경시대에 걸 맞는 사상원리를 추출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원리를 관철시켜 온 그 과보로 지구환경 파괴라는 문제가 확대돼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18세기 산업혁명기의 서구 가치관과 스미스의 경제학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

⑰ 코칭과 진정성

허달의 불교와 코칭

삶의 주인 되어 모든 것에 진정성 가져라

미래산업 주식회사의 정문술 사장이 아직 현직일 때 그가 제주도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미래산업이 신상품 개발에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실은 스무 가지 개발 제품 중에 열일곱 개가 실패하고 세 개가 성공한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 개발을 하느라고 연구실에 야전침대 들여놓고 연구원들과 동고동락 해가면서 밤낮 없이 골몰했었는데, 그 중 한 제품 개발은 너무 어려워서 연구원들이 결국 손을 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사장님, 아무래도 이건 포기해야겠습니다."

어느 날 최후 통첩을 받았으나 그래도 실망한 기색은 보일 수 없어서 소주 몇 병 사서 쫑 파티 해 주고, 오랜만에 다리나 뻗고 잠 한번 자보자고 집으로 철수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속에서 불현듯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파자마 위에 점퍼 걸치고 연구실로 달려 가서, 술 취해 잠자던 연구원들 두들겨 깨워서 꿈에 본 아이디어 적용해 보니, 아, 바로 그게 해결책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동화 같은 또 하나의 해피 엔딩이 이루어졌다고, 집중과 헌신이 창의력과 연결되는 놀라운 파워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기억이 새롭다.

이 회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문술 사장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결심을 하고 이를 전 사원에게 공표했다고 한다. "첫째, 이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의 것이다. 내 가족은 이 회사의 경영에 절대로 간여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자신이 퇴역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해 300억 원을 한국과학기술원에 기증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그것이었다.

다른 많은 기업인들과는 달리 정문술 사장은 이 약속을 철두철미 지켰으며, 그 가족들에게는 공장은커녕 사무실 방문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투철함이 항간에 회자되는 것을 들었다. 이 진정성이 아마도 오늘의 미래산업을 온 구성원이 몸 바쳐 일하는 유망기업으로 성장하게 만든 동력이었을 것이다.

<고등어를 금하노라>라는 책을 출간한 50대 건축가 임혜지 씨는 독일 남자와 결혼해 독일에 살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녀의 책이 요즘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누구나 '삶의 주인이 되라'는 주도적 삶의 자세를 강조한 글이다. 재미도 없는데 돈 때문에 더 일하지는 말라고 남편의 승진을 말리는 아내, 자녀에게 공부도 연애도 강요하지 않겠다는 엄마,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의 품위는 내가 선택한다는 그녀의 현명한 둔감력(鈍感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히게 하는 원동력일 것이다.

내게 멘토 코칭을 받고 있는 어떤 기업의 임원이 하루는 멘토 코칭의 한 과정으로 자신이 부하직원을 코칭 한 녹취파일을 하나 가져왔다. 검토하여 잘 된 곳, 잘못 된 곳을 찾아 피드백 해달라는 것이었다. 약 30분 간의 코칭 장면을 녹취한 것이었는데, 한 마디로 겉핥기 코칭이어서 코칭의 주제도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고, 고객과 코치 모두 몰입도도 낮아서 실망이 컸다. 그래서 즉석에서 내가 주제 하나를 제시하고 내 문제를 코칭 하도록 시연 시켜보았더니, 아직 숙련이 부족한 미흡함은 있었으나 녹취된 코칭 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훌륭한 코칭을 하는 것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객과 함께 다시 찬찬히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주제의 진정성 결여가 먼저 지적되었다. 부하 직원이 억지 춘향으로 만들어 온 절실하지도 않은 주제를 과제 삼아, '연습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교과서의 코칭 모델을 적용하여 코칭을 시도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부하 직원에게 해보도록 권고했다.

"자네가 가져온 그 주제는 스스로 얼마나 간절히 해결하기를 원하는 과제인가?" 또는, "자네 주제의 절실한 정도를 1에서 10까지의 스케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임원은 크게 고개를 끄덕여, "아하!" 하는 깨달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자신이 코칭에 임하는 자세의 진정성도 함께 반성했을 것이다. 이로써 다음 코칭 세션에서는 보다 더 자신의 진정성에 입각해 고객의 본질과 연결된 코칭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깨어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스스로 그러함'이 진정성의 표출일 뿐이다. 코치는 고객과 함께 이 진정성의 세계에서 둘 아닌 하나가 된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물 · 공기 · 나이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한 수행

前 조계종 포교원장 여산(如山) 암도 스님



"산처럼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대로 있잖아"

대중법문 6500여 회… 팔정도 육바라밀 수행이 잘 사는 길

"터가 참 좋습니다."

"그럼, 명당이지."

대숲의 고장 전남 담양. 읍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그리 높지 않은 건물들이 일렬로 늘어선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형성한 띠 너머로 보인다. 읍내 뒤에는 다시 추월산과 병풍산 삼인산이 서로 어깨를 걸고 든든하게 뒤를 지키고 섰다.

언제 봐도 지겹지 않을 그 풍광이 한눈에 조망되는 곳. 대숲이 포근하게 감싸 안은 곳에 마하무량사가 있다. 5년 전부터 터를 다지고 법당과 요사를 지어 온 여산 스님. 세상에는 '암도(岩度)'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스님이다. 젊은 나이에 철학박사 학위까지 받은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장과 교육원장을 역임하고 수도승(首都僧, 서울 스님) 생활을 마감한 뒤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젊은 수좌들과 3년간 안거를 난 뒤 이곳에 아담한 절을 짓기 시작했다. 수도승(修道僧)다운 귀산(歸山)이랄까.

"이름을 바꾸신 겁니까?"

"이름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도로 살아온 시간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여산으로 살아보려는 거야. 여산, 이 두 글자는 참으로 큰 의미를 품고 있어. 산처럼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산이야말로 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은가. 철따라 꽃피고 낙엽지고 눈 내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이 오고가도 늘 그대로 있잖아."

"요즘도 법문을 다니십니까?

"자주는 안 다녀. 늙으니까 불러주는데도 없어. 가까운 곳에서 오라면 가고 멀리서 오라고 해도 달려가는데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법문 다닌 덕분으로 이런 절이나마 일구고 살지. 요즘은 일하는 게 전부야. 일이란 게 끝이 없어."

한때 여산 스님은 법문 잘하고 많이 하기로 국내 최고였다. 수첩에는 늘 법문 일정이 빼곡했다. 하루 다섯 곳에서 법문을 한 것이 최대기록이다. 포교사로서의 남다른 열정이 법문을 많이 하게 했고 법문을 많이 하다 보니 말하는 '기술'도 늘었다. 그래서 '여산 스님의 법문은 장소팔 고춘자 만담보다 재미있다'는 얘기가 날 정도였다. 껄쭉한 이야기에서 매끈한 이야기, 요절복통할 재담에서 눈물을 쏙 빼는 훈계에 이르기까지. 지난 30여 년 간 스님이 대중법문을 한 횟수는 6500여 회에 이른다고 한다. 지금도 스님의 법문 테잎은 성지순례 다니는 버스에서 단연 손꼽힌다.

요사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멀리 읍내 쪽을 바라보니 역시 경치가 좋았다.

"절터가 정말 좋습니다. 사람 사는 마을과 그 마을을 둘러싼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이채롭습니다."

"명당이라니까. 어떤 자리를 명당이라고 하는지 아는가? 밝은 곳이 명당(明堂)이야. 도선 국사나 무학대사가 땅을 괜히 고른 게 아니거든. 땅에는 기운이 있기 때문이야. 좋은 땅에서는 그 기운이 올라오는 혈(穴)이 있는데 그게 아주 작아. 볼펜 끄트머리 정도라고 해. 그 혈을 중심으로 집을 짓고 살면 좋다는 것이지. 묘도 마찬가지고. 옛날 절에는 금당(金堂)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잖아? 그 가람의 중심이지. 나는 금부처님이 모셔진 곳이라서 금당이하고 하는 줄 알았어. 금당 터가 바로 명당의 혈이야. 땅기운과 물기운 불기운과 바람기운이 하나로 모여서 돌아가는데, 순행을 하는 곳이 좋은 곳이고 난행(亂行)을 하는 곳이 나쁜 곳이라고 보면 돼. 순행을 하는 곳은 생기복덕지(生起福德地)라 하지."

초가을 햇살이 요사 마루로 가득 들어왔다. 비스듬히 파고드는 햇살이 따가웠다. 자리를 법당으로 옮겼다. 문을 활짝 열어젖힌 법당에서 보니 먼 산이 더욱 장엄해 보였다.

"여기까지 온다기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스님께서 얘깃거리로 고민을 하신다니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냐, 난 법문을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항상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고 메모하지.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 그게 어디 법사인가? 만담가지."

그리고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펴놓으신다. 한자와 영어와 한글이 섞인 메모다. 스님의 법문은 대숲 그림자가 법당 앞마당에 이르도록 이어졌다.

자, 부처님 경전은 여시아문(如是我聞)으로 시작하는데 내 얘기는 여시아사(如是我思)로 시작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쯤으로 말이야.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니 틀린 것이 있어도 내가 틀리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 그렇게 알라고.

오늘은 웰빙 얘길 좀 할까 해. 웰빙 시대라고 하니까 말이야. 사람들은 웰빙을 '참 살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건 잘못 된 번역이야. 참살이가 있으면 거짓 살이도 있다는 것이 되잖아. 사는데 참과 거짓이 있을 수 없지. 살아 있는 자체가 얼마나 숭고한 일인데 그걸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나는 웰빙을 그냥 그대로 '잘 살이'라 읽어야 한다고 봐. 잘 살기란 말이지. 우리가 중생심에 물들어 잘살지 못하니까 잘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게 공부고 수행인거야. 그러니까 '잘 살이'라 하면 잘살고 잘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살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포함한다는 말이지. 웰빙은 잘살기 운동이거든.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해. 살아가는 힘, 파워 말이야.(이 대목에서 스님은 두 팔을 올려 주먹을 힘차게 쥐어 보였다.)

그런데 웰빙 시대라고 하는 풍조를 보면 주로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물론 잘 먹는 게 잘 사는 길이지만 지나치게 먹는 것에 치우쳐서 웰빙을 이해하려 하면 잘못이지. 웰빙은 먹는 것을 포함해 육체와 정신생활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니까.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알아볼까?

음식을 잘 먹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골고루 먹는 것이고 다음은 제때 먹는 거야.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편식을 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는 의미지. 제때 먹는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인데, 부처님은 꼭 사시(오전 10시~11시)에만 음식을 드셨지. 그런데 이 '제때'라는 게 말이야, 그 '제'자(字)가 '배꼽 제(臍)'자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때 먹는다는 것은 배꼽에서 신호가 올 때 먹는다는 것이지. 그렇게 음식을 골고루 제때 잘 먹으면 힘이 생기지.

또 물을 잘 먹어야 해. 음식이라 할 때 음(飮)은 바로 물을 마신다는 뜻이야.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탈나지 않아. 물론 맑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하고. 자주 마시면 병균도 방출시키지. 요즘 신종플루 공포가 대단한데,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하잖아? 예부터 자시(子時)에 마시는 물이 좋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시간을 기해서 물의 성질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해. 차도 마찬가지야.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에 차도 포함되는 거야. 물을 잘 마셔야 정력(精力)이 생겨.

다음으로 잘 먹어야 할 것은 공기야. 공기도 먹는 것이냐고 하겠지만, 공기도 잘 먹어야 해. 수행에서 호흡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바로 그 이치야. 숨을 깊이 쉬고 길게 쉬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 그렇게 호흡하면 정기(精氣)가 나와.

또 마음을 잘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지. 스스로 정신을 맑게 하고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융통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 그것이 산과 같은 마음 아니겠어? 우리가 먹어야 할 마음은 진실한 마음, 착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야. 이를 청정 원만 지혜라 할 수 있는데, 탐내고 성질부리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지. 이 마음을 잘 먹고 사는 것이 진선미의 삶이야. 마음을 잘 먹고 살면 좋은 생각이 나오고 늘 밝고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잘 먹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이야. 사람은 나이를 잘 먹어야 해. 나이를 잘 먹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답게 사는 것이지. 자신의 본분을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분수껏 행동하는 게 나이 잘 먹는 길이지. 그렇게 나이를 잘 먹으면 뭐가 생길까? 나이를 잘 먹으면 지혜가 나오지. 흰머리는 누구

여산 스님은 ...

1939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해 열일곱 나이에 백양사로 출가했다. 은사는 서옹(西翁)스님. 1972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입학해 만학을 시작, 1978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와 포교원장 교육원장 등을 역임하며 포교와 교육 불사에 진력했다. 백양사 주지(1980년)와 중앙승가대 교수도 역임했다. 전국 법회 현장을 쉴 새 없이 다니며 법문했으며 공직을 사임하고 백양사 운문선원과 청량선원에서 3년간 정진했다. 현재는 전남 담양읍에 마하무량사를 창건, 경전 연구와 좌선을 하며 텃밭도 가꾼다.

화제의 불화

수월관음도

불자가문의 번영의 수호신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칠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진실하게 사는 것이 웰빙

나 나이 먹으면 나오지만, 지혜는 진짜 나이를 잘 먹은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야. 결국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 그것이 웰빙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그렇고, 이제 멋지게 잘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차례군. 나는 다섯 가지의 힘(五力)이 있어야 멋지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오력이 무엇이야 하면, 우선 체력(體力)이야. 몸이 튼튼해야지 비실비실한 몸으로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어?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 앞에 설명한 먹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

그 다음은 재물(材力)이 있어야 잘 수 있어. 물론 돈의 힘을 믿고 의존하라는 것은 아니야. 정당한 방법으로 떳떳하게 벌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잘 쓰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세 번째는 정신력(精神力)인데, 이를 스님들에게 접목하면 법력(法力)이라고 하더군. 정신력은 그 사람의 생존에 중요한 힘이지. 정신력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힘이 필요하고 깊은 선정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의 힘도 필요하지. 믿음의 힘은 자신의 주체의식을 길러주고 안정된 삶을 가능하게 하지. 바르고 강한 정신력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단한 수행의 자세를 유지해야 해. 정신력을 바로 얻지 못하면 멋진 삶을 살 수 없어.

네 번째 힘은 권력(權力)인데 이것은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잘 들어야 해. 권력은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남이 인정해줄 때 진정한 힘이 나와.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의지를 앞세워 권세를 부리는 것은 권력이 아니야. 남의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진짜 권력이지. 그러니까 멋지게 살려면 자신에게 있는 힘을 자신이 아닌 남의 이익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매력(魅力)이 있어야 멋지게 살 수 있어. 매력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정직하면 돼. 정진하게만 살아도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요즘은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세상인데 자신과 남에게 늘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겠어? 잘 살기 위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힘을 잘 기억하고 그걸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웰빙이지.

웰빙, 다시 말해 '잘 살이'를 하려면 바르게 살아야 해. 정직해야 하거든. 삶의 바른길을 부처님께서는 여덟 가지로 가르치셨어. 바로 팔정도(八正道)야. 그 핵심은 몸과 입과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이지. 그것이 신구의(身口意) 삼업이고 이 삼업을 잘 닦으려면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 순간의 욕심에 끌려 살아버리니까 세상이 혼탁한 거야.

우리가 쓰는 말들을 가만 생각해 봐. 문자에는 여러 의미가 중첩돼 있거든. 중 승자(僧)를 보자구. 사람 인(人)변에 일찍 증(曾)인데, 이걸 보통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석하거든. 퍽 고상한 해석이지. 그런데 어디 그런가? 나는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낫다고 봐. 그렇게 고상한 이름을 가지고 승이랍시고 권위를 부려대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교계에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은 없는 줄 알잖아? 승려(僧侶)라는 호칭은 이제 직능직 명칭이 돼 버렸어.



그래서 웰빙이라고 할 때, 잘 먹고 잘사는 것도 중요하고 멋지게 잘사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거야. 바르게 잘 사는 길은 누구나 잘 아는 팔정도가 제시돼 있고 그 핵심이 삼업과 삼학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

이제 마지막으로 참으로 잘 사는 길을 설명해 볼까? 그것도 이미 제시돼 있는 불교의 기본교리야. 육바라밀이거든. 남을 위해 보시하고[布施] 스스로 청정한 생활을 하고[持戒] 들끓어 오르는 욕망을 제어하여 참을 줄 알고[忍辱] 늘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精進]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유지할 줄 알고[禪定] 지혜(智慧)의 삶을 누려 나가는 것이지.

참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멋지게 살고,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진짜 웰빙인데 그 길이 다 부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불자로서 얼마나 행복하겠어? 부처님 가르침은 산같이 큰데 우리 소견이 좁아서 문제지.

산그늘이 마하무량사 마당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공양간 노보살님이 차려놓은 소박한 밥상, 시래기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공양간에도 여산 스님의 '웰빙 법문'이 가득 차 있음을 실감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3. 효행도인 정대 스님

정대(正大, 1937~2003) 스님은 1937년 전주출신으로 속명은 병식(炳植)이고 법명은 정대이며, 법호는 월암(月庵)이다. 1962년 완주 위봉사에 갔다가 전강 스님을 만나 통도사 월하 스님께 계를 받았다. 용주사 중앙선원에서 수안거(首安居)를 하고 망월사, 덕숭산 수덕사 등에서 10안거를 성만한 뒤 1969년 신륵사 주지가 됐다.

여주 불교대학 법회에 갔다가 신륵사에 들리니 뒷방에 홀로 앉아 천수주력을 하다가 뛰어 나왔다.

"우경 법사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사님 <천수경 강의>를 읽고 어머니를 위해서 천수주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십시오."

"우리 스님께서 몸이 허약해 늘 걱정입니다. 그런데 일은 많고 새벽부터 일어나 살펴도 좀체 가닥이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또한 불심이 장했다. 옛날 진묵 스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봉양했고, 중국의



지공 스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포교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퇴락한 절을 보수했다니 더욱 더 존경스러웠다.

그 뒤 정대 스님이 서울에 올라와 총무원 사회국장, 재정국장, 규정국장, 총무부장을 할 때 나는 조계사 학생회 법회를 보았으므로 종종 길거리에서 만나 뵈었고 중앙종회 부의장, 1988년 중앙종회 의장이 됐을 때에도 자주 뵐수 있었다.

스님들은 선거 때마다 "정대 스님이야 말로 화합의 도사요, 일과 이치에 능수 능난한 인격자"라고 칭찬했다.

평상시 말이 없어 조용하기만 한 스님이 입을 열었다 하면 파사현정(破邪顯正)이요, 이고득락(離苦得樂)이라 종단의 어려운 일들이 묘하게 해결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박수를 쳤다. 이것은 오직 방외도인(方外道人) 출격장부(出格丈夫)인 전강 스님을 모신 덕이라고들 말했다. 완주 위봉사에서부터 인천 용천사에 이르기까지 공양주, 채공 다공을 다 겪었고, 또 동산 효봉 청담 큰스님들과 함께 정진하면서 선교방편으로 대기설법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보고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수원 용주사 주지를 맡아 용주사를 새롭게 단장하고, 은사님께서 문을 닫았던 중앙선원을 다시 살려 선풍을 진작하고,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이 돼 불교방송국을 개원한 것이라든지, 평화통일자문위원 · 동국학원 이사로서 각각 10년간 활동하면서 불교포교와 동국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1999년 조계종 총무원장이 돼서는 중앙승가대를 김포로 이전하고, 조계사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착공해 종단의 숙원불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한일불교 교류와 세계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 또한 크다.

어머니 최은수 여사와 스님의 이름을 따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을 만들어 장학사업을 시작한 것도 특별히 기록할만 한 일이다. 허약한 몸으로 일생을 종단 중흥불사와 교육사업에 헌신하면서도 '앞이빨에 털 난(板齒生毛)' 이치를 꿰뚫어 2003년 11월 18일 임종시에는,

"올 때에도 죽음의 관문에 들어오지 않았고
갈 때에도 죽음의 관문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고 세수 67세, 법랍 42세로 입적했다. 작은 고추가 맵다 했는데, 맵지도 아니하면서 고추 노릇 잘하기는 정대 스님이 일등이다.

'화합 도사'로 불려… 종단 중흥불사 · 교육사업에 헌신

너무나도 평범하고 소탈해 큰 절 주지스님 같지가 않았다.

"전강 큰스님께서 법사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법사님께서 강의하신 <초발심자경문>과 <치문경훈>을 교재로 해 저희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 한국전쟁 후 이렇게 퇴락해 있는 사찰을 일신 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님 덕분이지요."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뒤에 들으니 원래 가정이 부유해 전답이 많았는데, 스님이 출가하다 보니 어머니까지 따라오셔 같이 모시고 살림하면서 조상의 땅 값으로 가람 일대를 일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절에 들어와 절 돈을 얻어다가 집안 살림하는 사람도 있는데, 집안 살림을 팔아다가 절 불사를 했다는 말 듣기로는 금시초문인 것 같아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천태종 다문화가정 지원 나서

구인사 · 단양군, 단양 다문화가족 기원 업무협약… 기업은행 광고비 2억 후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가 다문화 이웃돕기에 본격 나섰다.

단양 구인사(주지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는 9월 23일 단양경찰서에서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단양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전병용 단양경찰서장, 조옥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총무부장 무원 스님, 총무국장 갈수 스님, 김동성 단양군수, 박기륜 충북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협약식에 앞서 "모든 중생이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듯, 문화와 말 등 환경이 다르다 해도 다문화가정은 우리 곁의 이웃"이라며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병용 단양경찰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며 "170여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는 단양군은 협약식을 통해 구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그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9월 23일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이웃지원에 본격 나설 천태종과 단양 지역기관. 왼쪽부터 전병용 경찰서장, 정산 스님, 조옥자 센터장.

협약에 따라 구인사는 다문화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해 다문화가정 생산농산물 등을 우선 구입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존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다문화 모자(母子)가정을 위한 '명락빌리지'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인해 천태종의 문화 · 정서적 지원이 다문화가정 안전지원과 외국인 신변보호관리, 법률상담 등을 진행해 온 단양경찰서와 한글교실 등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지원에 나서고 있는 단양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기존 활동과 맞물려 유기적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천태종은 기업은행에서 9월 25일 광고비 2억 원을 후원 받았다.

천태종은 설법보전에서 정산 스님, 김규태 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600여 종단 간부진이 모인 가운데 전달식을 진행했다.

정산 스님은 전달식에서 "올해로 2년을 맞은 기업은행과의 인연을 이어 서로 협력해 좋은 관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규태 기업은행 부행장은 "천태종단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성공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종단 관계자와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천태종과 기업은행은 2008년 4월 천태자비카드 업무제휴를 맺은 이래 상호협력관계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달받은 2억 원의 광고후원금은 2010년 천태종 달력 55만부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02)873-3405

노덕현 · 이나은 기자

20년 한결같은 자비보시 실천

능인정사 법경 스님, 광진구 내 200세대에 쌀 · 비누 전달

20년 동안 꾸준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 포대 화상 같은 자비의 손길을 펼친 스님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광진구 능인정사 주지 법경 스님이 그 주인공.

스님은 9월 28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독거어르신 200세대에 각각 쌀과 비누세트를 전달했다.

행사는 능인정사 불자회인 나눔의봉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무량사 주지 금담 스님은 격려사에서 "법경 스님은 종교를 초월해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 이런 분들의 공덕으로 포교가 되고 불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종교편향에 대응만할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정신적 지도자로서 위상을 갖고 중생구제에 힘을 쏟으면 자연히 종교간 다툼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경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석은 더욱 힘들고 외로운 날"이라며 "나눔의봉사회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전달품을 마련하게 됐다. 즐겁고 건강한 추석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왼쪽)과 법경 스님(왼쪽 두 번째)이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시와 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능인정사와 불교계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능인정사 외 불교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법경 스님은 1986년 포교당을 열었을 때부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이웃들에게 매년 500포대(20㎏)의 쌀을 나눠주고,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왔다. 또 스님은 2005년 건국대병원이 새 병원을 개원한 이후 매년 1000만원의 병원비를 지원해오면서 병원법당 지도법사를 맡아 환자와 가족을 돌보고 있다.

법경 스님은 사회봉사활동이 알려지면서 2004년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시민대상 봉사상, 광진구민 봉사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법경 스님을 비롯해 대허 스님(청봉사 주지), 정송학 광진구청장, 조길행 광진구의회 의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02)455-1080, 나눔의 봉사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776201-04-040560 (예금주: 나눔의 봉사회)

이나은 기자

내딛는 걸음마다 희망 영글어

생명나눔 제2회 희망걷기대회 열어

"맑은 하늘아래 숲길 걸으니 치료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주최한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대회'가 9월 2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별자리광장에서 열렸다.

희망걷기대회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모금활동 및 헌혈캠페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환우와 가족, 일반시민, 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월드컵공원 별자리 광장에서부터 난지순환길 6㎞를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일면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기증하는 장기 · 조직 · 각막 및 조혈모세포 기증은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큰 나눔이며 그 나눔은 어떤 나눔보다도 위대한 자비행이요 보살행"이라며 장기기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주최한 '희망걷기대회'에서 일면 스님(맨 오른쪽)과 환우 및 봉사자들이 함께 걷고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걷기대회를 마치고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그룹 '해피체어' 외 공연참가자들의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페이스페인팅, 아트풍선 등 다양한 이벤트와 조혈모 기증희망 등록캠페인에 참여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8일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회주 일면)에서 '제15회 시신 및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복지사가 험한 세상 다리 돼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브랜드마케팅'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9월 25일 정책포럼 '사회복지 브랜드마케팅'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브랜드마케팅의 이론적인 개념과 병원, 상담기관, 지역단체, 공공기관 속에서의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양원석 소장(푸른복지사무소)은 '사회복지(사)의 포지셔닝과 복지브랜드 전략과 홍보'라는 주제로 마케팅과 사회복지를 접목해 복지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양 소장은 "사회복지사가 다른 직업인보다 무엇을 잘 하는지에 대해 고찰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란 사회적 약자와 공식적 지지와의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청소년 내꿈 찾기 의지나눔 쉐어윌'이 26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기생 입학식을 가졌다. 서울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쉐어윌 프로그램의 2기 참가자들은 중학교 1~3학년 학생 81명과 동국대 108리더스 대학생 봉사자 1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5개월간 둘째, 넷째 토요일에 각계각층의 직업군봉사자와 만남을 갖게된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바로잡습니다 751호 '불교상례지도사 모집' 기사에서 문의 전화번호를 (02)737-7277에서 (02)733-7277로 정정합니다.

한가위, 이웃이 가족이에요

꿈을이루는사람들, 구미서 열 번째 이주민추석큰잔치

국내 거주외국인 100만 명이 넘어선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주민들과 함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비영리민간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9월 27일 구미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제10회 이주민추석큰잔치'에는 진오 스님을 비롯해 윤창욱, 최윤희 경상북도 의회 의원 및 구미1대학 아동복지학과 봉사자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추석은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이는 한국의 큰 명절이다.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지만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욱 도의원은 "매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추석잔치를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이 9월 27일 주최한 '제10회 추석 큰잔치'에서 이주민과 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길놀이, 민요공연, 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밴드공연, 송편만들기, 한복입어보기 등 한국문화 체험과 각국의 음악과 춤을 즐기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이주민들의 흥을 돋우었다.

특히 이날 건축현장에서 사고로 양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한 인도네시아 뚜리아(26)씨 치료비와 남자아이를 출산한 네팔 예소다(34)씨에게 사랑의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시간도 가졌다.

한편 순천향대 구미병원봉사단과 영제한의원 김경태 한의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진료봉사를, 외환은행 구미역지점은 송금은행 업무 봉사활동을 펼쳤다. (054)458-0755

이나은 기자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47 밥은 모험: 채식당 기행-부채도사 편<2>

일체유심조, 몸배바지 아주머니의 밥상

가을기운이 시나브로 완연해지는 계절에 부채도사님과 그의 애제자인 수안 처사와 대연 스님은 서울의 한 뒷골목을 서성이고 있었다. 늦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다. 그 동네의 인근 대학교를 졸업하고 히말라야로 떠났던 때가 어언 십년도 넘은 일이라, 일 년 전에 다시 돌아온 그 자리가 부채도사님에게는 여전히 친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일터. 학교 입구를 찾지 못해 담벼락을 넘어 쓰레기통으로 첫 등교를 했다는 모교로 돌아와 이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입장이 되었으니 그 감회가 남다를 만도 할 테다.

"고등학교를 때려치우고 거리에 나와 자기 시작한 곳이 대학로였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고 싶은 자리는 원래 대학로였어요. 그 거리에서 소크라스테스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람들과 대화술을 쓰면서 돌아오려 했는데 나보다 더한 꼴통들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 끼어봐야 난 표도 안 나겠더라고. 그래서 착해진 거예요.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묶고…"

착해지기 위해 오늘 아침엔 머리까지 감고나왔다는 부채도사님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해지면 난 다시 또라이가 될지 싶어요. 그래야 세상에 다양한 메뉴판이 채워지지…"라며 부채를 펴들고 살랑살랑 바람질을 해댄다. 하지만 대학로에서 선회해 돌아온 '대학'이라는 제도권의 공간이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고사하고라도 그의 말총머리나 생각만큼 자유로운 그만의 언어법을 이해해주기나 할까.

부채도사님의 추억이 골목골목마다 묻어있는 동네를 이십 여분 돌아 찾아낸 곳은 건물2층에 자리 잡은 '시골뷔페 연장전'(02-2277-1020)이라는 간판을 단 가게였다. 입구에 들어서니 약간은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몸배바지 차림을 한 아줌마가 오래 전부



'시골뷔페 연장전' 주인 아주머니의 조리모습.

터 알고지낸 사이마냥 반긴다. 주방 근처 테이블에는 호박나물에 도라지무침이며 간장에 짭조름하게 조려진 김조림과 두부조림 등 오만 찬이 마련되어있고, 수년 동안 길들여졌을 빨간 밥통과 들통에서는 금방 지은 듯한 하얀 쌀밥과 시락국이 따끈한 김을 품고 있다. "어여들 들어와. 방금 막락 해서 따뜻혀"라며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 찬 저 찬을 권하는 아줌마의 채근은 밥맛을 더욱 돋우고, 무엇보다 아줌마의 발목 위로 깡충하게 올라온 몸배바지와 연분홍색 슬리퍼가 압권이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여기가 선술집이었는데… 왜 있잖아요. 지붕에서 뛰어내려도 다리가 성할 정도로 나지막한 일본식 건물 같은 2층…."

그러고 보니 수업시간에 부채도사님이 군법사 시절, 일체유심조에 대한 생생한 강의를 하고 싶어 3층에서 뛰어내려보았다는 일화가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다.

"그때 일체유심조의 의미를 진짜로 알고 싶어 6개월을 고민했는데 풀리지 않아 3층에서 뛰어내려봤어요. '나는 내 마음과 하나다… 여기서 뛰어내려도 포근한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어' 하면서 마음과 진짜 하나가 되는지 실험해본거지. 결국 이만 두 개 부러지고 다리인대가 나갔지만… 그래서 이런 일체유심조는 아닌가보다 했지.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일체유심조가 있어요…"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그의 이야기가 결코 웃지 못 할 애절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식사는 끝나가고 있었고 가장 먼저 식사를 마친 스님은 "주인아줌마가 이것도 금방 막 만들었다네요."라며 어디선가 따끈한 기운이 채 식지도 않은 수정과를 후식으로 가져왔다. 부채도사님이 온몸으로 알아낸 일체유심조의 맛을 3층에서 뛰어내려본 경험도 없는 내가 제아무리 찍어먹어 본들 그 맛을 알 도리는 없으나, 따끈한 수정과를 홀짝이며 마시는 이 순간에 적어도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있다. 그가 체득한 일체유심조의 맛이 몸배바지를 곱게 차려입은 아줌마의 밥맛과 닮았다는 것….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6 식적

식적이 없어야 뱃속이 편안하다

개그맨 이수근 씨 덕분에 잘 알려진 '식적(食積)'이라는 단어는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과 참 가까이에 있다. 주위에서 '어젯밤에 과식을 했더니 속이 더부룩해', '차가운 음식을 먹었더니 배가 아프고 빵빵해지는 것 같아', '오랜만에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방귀가 자꾸 나와' 등등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식적 증상이다.

아래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식적인지 아닌지 진단해 볼 수 있다.

※ 식사후에 배가 더부룩하다.
※ 식사와 상관없이 트림이 자꾸 나온다.
※ 헛구역질을 한다.
※ 평소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이 쓰리다.
※ 배가 개구리배 같이 빵빵하다.
※ 평소 방귀를 자주 뀐다.
※ 보통 변비 또는 설사가 있다.
※ 대변색이 검거나 진하다.
※ 대변이 풀어져 나오거나 토끼똥 같이 작고 동글하게 나온다.

이 중 3개 이상이거나 같은 증상이 한달 이상 계속되면 식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식적에 해당한다고 판별이 되어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식적이란 장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비정상적인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어 우리 몸의 균형이 흐트러진다면 주의해야 한다. 한 번, 두 번 빗물이 새기 시작한 지붕은 금세 금이 가고, 급기야는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적'이란 문자 그대로 '먹은 것(食)'이 '쌓여 있다(積)'는 의미이다. 우리 몸 속에서 이미 소화됐어야할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쌓여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더부룩한 불쾌감을 주는 증상이다. 결국 소화기능이 저하된 문제이다.

필자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환자들에게 생활습관의 교정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습관의 교정이 바로 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첫째,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야채, 과일, 잡곡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먹을거리의 섭취를 늘릴 필요가 있다. 육류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장에서 분해되면서 독한 냄새의 방귀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다.

반면, 섬유소가 풍부한 먹을거리는 일단 부피가 커서 대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을 원활하게 하며, 장속의 독소들을 배출한다. 충분한 섭유소 섭취는 불룩해진 배도 들어가고 방귀도 덜 뀌게 되며 위로는 머리도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며 몸이 가벼워지게 한다.

둘째, '언제' 먹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해가 지고난 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보감에는 '하루의 꼭 지켜야할 법도는 저녁에 포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소화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면 소화를 못시킨 장기들이 힘겨워할 것이고,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셋째, 물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수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물을 식사 전 30분에서 식후 1시간을 피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다. 식사시간에 물을 마시게 되면 위산이 물에 희석 돼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게 된다.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소장과 대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이 식적을 일으킨다.

필자가 한의원에서 하는 식적 치료법

① 식적 해소침 : 복부침, 사관침을 통해 식적이 분해되어 배출되는 효과를 본다.

② 식적 분해 약침 : 식적을 분해하는 약침요법으로 식적을 근원적으로 없앤다.

③ 장해독 비비환 : 식적을 분해하여 근원적으로 장을 해독하는 장해독환은 탁월한 효능이 있다.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 giban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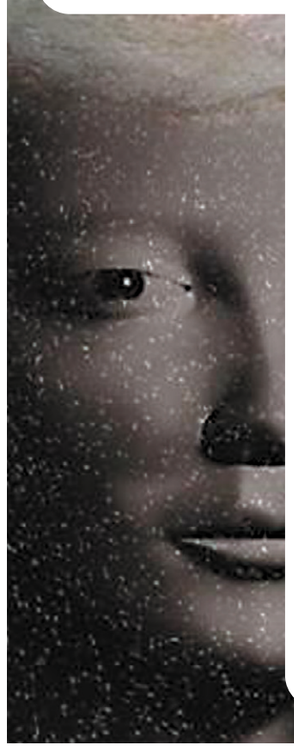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빅뱅우주 가고 프랙탈우주가 온다

'티끌속의 무한 우주' 한영일중서 5개 국어로 출간



티끌 속의 무한우주 | 정윤표 지음 | 프랙탈북스 | 1만5000원



"한 티끌 그 가운데 시방세계 머금었고(一微塵中含十方) 일체의 티끌 속도 또한 다시 그러해라(一切塵中亦如是) 끝이 없는 무량겁이 곧 일념이요(無量遠劫卽一念) 일념이 곧 끝이 없는 겁이어라(一念卽是無量劫)."

시간적, 공간적으로 끝없이 중첩된(重重無盡) 화엄의 세계를 표현한 '의상 조사 법성계'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불교적 우주론을 물리학적으로 해설한 책 <티끌 속의 무한우주>(프랙탈북스)가 출간 15년만에 증보판을 내고, 한 · 영 · 일 · 중 · 서 등 5개 국어로 출간돼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저자인 정윤표 씨(부산항 도선사)는 이번 증보판에서 현대 물리학의 최신 연구결과물을 추가해 빅뱅우주론을 비판하고, 우주가 10의 30승을 상수로 하는 프랙탈(Fractal: 무한중첩된 자기유사성을 뜻함)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현대 우주론의 다수설을 차지하는 빅뱅이론은 우주는 태초에 초고밀도의 '우주의 알(Cosmic Egg)'이 폭발해 광속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것. 빅뱅이론은 유한 우주론으로,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150억 년과 150억 광년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저자는 물리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빅뱅이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자신의 이론인 '프랙탈우주론'을 펼쳐나가는데, 특이하게도 그 시발점은 불교 경전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이다.

"아미타불의 신장은 60만억 나유타 항하사 유순이고, 관세음보살의 신장은 80만억 나유타 유순이며, 대세지보살의 신장은 관세음보살과 같다."

저자는 '나유타'를 만억으로, '유순'을 40리(16㎞)로 계산해 관세음보살의 키를 1.28×10의 27승㎞로 계산해 냈다. 즉 관세음보살의 신장은 은하계 반지름보다 27억 배 더 크며, 우주 반지름의 9100배 인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사람의 평균 키를 1미터로 잡았을 때 1.28×10의 30승으로 비교된다.

저자의 프랙탈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무한하다. 즉 우리가 속한 우주와 같은 우주들이 무수히 많으며, 또한 그 모든 우주들을 포함하는 더욱 거대한 우주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는 그 속에서 보면 거대한 하나의 우주다. 그리고 이 과정은 위로나 아래로나 무한히 연속된다. 이런 우주관은 <화엄경>의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 있다'는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과 같은 뜻으로서, 저자는 <관무량수경>에 기록된 관세음보살의 신장을 현대의 단위로 계산함으로써 프랙탈우주론의 서막을 연다.

저자는 불경이 단순한 고대의 경전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주의 원리를 꿰뚫어 본 부처님의 과학적 지식이 담겨 있다고 보고, 불경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공을 관통하는 신 우주론의 구체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낸다.

이어서 저자는 소립자로부터 대우주의 모든 단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 대조하고 또 상호 비율을 일목요연하게 계산한 뒤, 우주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랙탈 구조의 상하 · 우주 간 모든 대응 요소들은 '10의 30승'이라는 상수를 바탕으로 일정한 비례관계를 나타냄을 명쾌하게 증명하고 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대응하는 단계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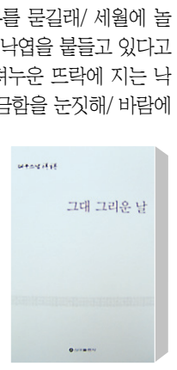
거시세계 : 태양(별)-은하핵-은하-은하군-은하단-초은하단-우주-(거대한 존재)

미시세계 : 소립자-원자핵-원자-분자-고분자-세포소기관-세포-(사람)

이 책에는 또한 저자가 프랙탈우주론을 탐구하는 과정과 함께 항해사, 선장으로서 20여 년 간 해상생활을 하며 겪은 흥미진진한 모험담도 곁들여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김성우 기자

마음 쉬게하는 77편의 선시

대우 스님 선시집 '그대 그리운 날' 펴내




대우 스님.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를 묻길래/ 세월에 놀라 버리고 떠날 줄 아는/ 낙엽을 붙들고 있다고 손 내밀었네/ 고요도 몸져누운 뜨락에 지는 낙엽/ 그 무게 얼마인지 궁금함을 눈짓해/ 바람에 가서 물어보라 말해주었네."(어느 가을날)

내장산 백련선원장 대우 스님의 선(禪)시집 <그대 그리운 날>(신아출판사)에 나오는 시다. 이 시집에는 구지 '선'이라는 제목을 달지는 않았지만 무심(無心)의 향취가 그윽한 77편의 선시가 독자들의 마음을 쉬게 한다. 스님은 유일하게 '선(禪)'이란 제목을 붙여 노래한 시에서 "꽃따라 미소가 피어나고/ 미소 따라 꽃이 피었기에/ 아름다움 다칠까 걱정스러워/ 임의 침묵 속에 천지가 무너지고/ 임의 무심 속에 우주가 탄생하고/ 나의 죽음 속에 돌부처 꿈을 깬다"며 '선심시심'을 드러낸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중앙종회의원, 경찰청 경승실장 등을 역임하며 군 · 경승, 재소자 포교에도 앞장선 스님은 제29, 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입후보에 이어 33대에도 입후보를 선언했다. 자연 속에 살면서도 포교를 외면하지 않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님의 심정은 '그대 그리운 날'이란 시에 잘 드러나 있다.

"사람은 하나도 없고/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나 말하고 싶습니다/ 손 내밀지 않고 주는 것 없어도/ 주소 없는 그대 보고 싶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

그대 그리운 날 | 대우 스님 | 신아출판사 | 1만원

김성우 기자

'동심 불심' 일깨우는 동화 3편 출간

정채봉 · 안도현 · 한정영 작가 글

'동심(童心)이 곧 불심(佛心)'임을 일깨우는 동화 세 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정채봉 글, 김세현 그림의 <꽃그늘 환한 물>(길벗어린이 · 1만1000원)은 흰구름이 들려주는 골 깊은 산속 암자에 사는 한 스님 이야기를 그렸다. 눈 내린 겨울 배고픈 짐승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개울가 돌덩이에 낀 이끼가 얼어죽지 않도록 보살피는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잔잔하게 그려졌다. 주변 모든 사물을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스님은 법정 스님을 모델로 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명 사이에 더불어 사는 마음이 열어지는 세상에 만물과 대화하는 스님의 이야기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독자들에게 단순 소박한 삶,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되찾게 한다.

안도현 글, 임양 그림의 불교동화 <왕의 마음을 바꾼 금빛 사슴>(파랑새 · 9000원)은 부처님의 전생담을 담은 <자타카(Jataka)> 가운데 '사슴 왕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각색한 책. 사냥을 즐기는 왕의 동산에 갇혀 사는 사슴들은 언제 사냥놀이에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사슴들은 고민 끝에 제비뽑기에 뽑힌 사슴을 왕에게 바치기로 하는데, 마침 아기를 뱀 엄마 사슴이 뽑히자 금빛 사슴은 대신 왕의 제물이 된다. 이에 감동한 왕은 금빛 사슴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떠한 동물도 사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 승자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 시대에 희생정신과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동화다.

한정영 글, 유승희 그림의 <칼눈이의 꿈>(가교출판 · 9500원)은 닭처럼 날지도 못하고 뚱뚱하게 된 비둘기 즉 '닭둘기'의 모험을 그린 동화다. 왼다리를 쩔뚝 거려 '왼다리'로 불리는 예쁜 암컷 비둘기는 공원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이나 주워먹고 사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자신의 새끼 '칼눈이'는 직접 사냥을 하고 집을 짓고 산봉우리 두 개쯤 건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날게 되길 바라며 모험을 떠난다. 희망과 꿈을 품고 날아가는 비둘기는 실은 본래부터 완전한 불성(佛性)을 자각하기 위해 수행하는 불자들의 날개짓과 다름없다. 김성우 기자

'행복하고 감사한 삶' 마무리하는 웰다잉 안내서

불교기자협회 안직수 회장 '아름다운 인생' 펴내



웰빙(well-being)과 웰다잉(well-dying)이 유행어로 떠오른 요즘, 멋지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이 요즘 말로 '대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죽음은 대부분 소리 소문 없이, 준비 안된 상황에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불교기자협회 안직수 회장(불교신문 기자)이 펴낸 <아름다운 인생>은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편안하게 이 생을 마감하게 하는 준비된 웰다잉안내서란 느낌이 든다. 1년 48주에 맞춰 구성된 이 책은 일주일에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필로 직접 정리하는 여백을 두고 있다. 첫 번째 주에는 세계 유명 철학자와 유명 인사 등의 유언과 웰다잉과 관련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아서 사유의 폭을 넓혀준다. 둘째 주 부터는 일상의 경험과 우화를 담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달이 마무리 될 때마다 '나의 생활 만족도 점검하기, 나의 죽음불안 척도 점검하기, 사전의료지시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 쓰기' 등 유용한 상식 팁을 제공하고 있다.

아름다운 인생 | 안직수 지음 | 아름다운인연 | 1만38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5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6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원철	호미
7	5분참선	현담	선
8	행복한 출근길	법륜	김영사
9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10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김상백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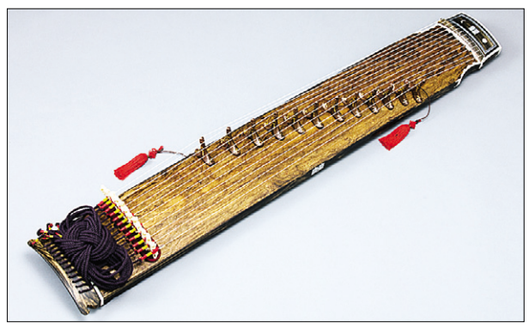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YADANBEOPSEOK 야단법석 구입문의:010-5318-0704 www.01053180704.com

진영만 '가야금' 대통령상

제34회 전승공예대전 11일까지



제3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진영만 作 '산조가야금'.

잔잔한 파도도 바다이다. 거칠게 휘몰아치는 파도만이 바다의 전부라 할 수는 없다. 점점 서구화 문화에 밀려 우리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잊게 되는 요즘, 전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장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고요한 외침이 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과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전협회(이사장 박찬수)가 주최하는 제3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이 9월 29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개막식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0개 분과로 25종목 447종 1072점이 출품됐으며, 이 중 193종 5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대통령상은 공예악기부분에 진영만씨의 '산조가야금'이 그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박찬수 위원장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순한 미적인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보다는 미와 더불어 기능의 중요성을 많이 봤다. 그러한 면에서 진영만의 작품 '산조가야금'은 고르고 여운이 긴 소리와 아름다운 음색이 탁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진영만씨는 "대한민국공예대전에 12년째 출품을 했다"며 "특히 이번은 대통령상을 받아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진 작가는 수상소감에 "무엇보다 전통기법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 전통의 맥을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래도 내가 전통을 있는 이로써 이런 문제를 보완해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지난 34년 간 우리 전통공예 전승의 주춧돌이 되어 온 공모전으로, 중요무형문화재와 많은 기능보유자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행사는 이런 역할 좀 더 본격화 하고, 많은 이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전년까지 다소 조용히 치러왔던 행사를 홈페이지 런칭, 기자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해 우리 선조의 미감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고유의 미를 맘껏 뽐냈다. 또한 10월 4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전통문화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전통문화가 현대사회에서 보존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그래서 이번 행사는 더욱 신경을 썼으며,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전통문화는 불교문화에서 많이 형성됐으므로, 현대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4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전시는 9월 29일~10월 11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간에서 열린다. (02)3453-1685

이은정 기자

달마가 꽃을 든 까닭은?

'적염산방'서 이심전심 달마와 소통하다

김양수 화백, 10월 6~31일 해인사서 개인전

여자라면 누구나 이런 상상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퇴근길 회사 앞에서 꽃을 들고 서있는 모습. 영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장면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고 떨리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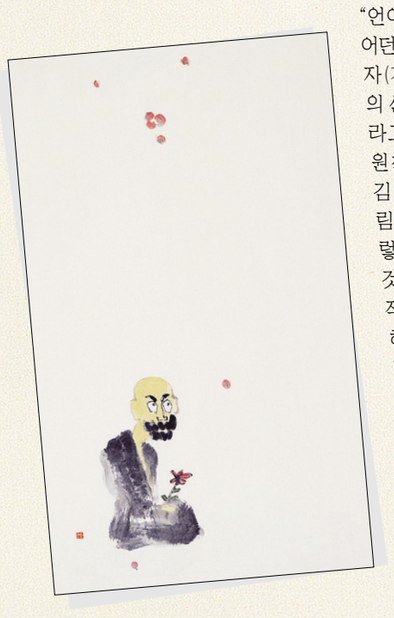
일휴 김양수 화백은 이런 여심(女心)처럼 자신도 설레고 싶었던 것일까. 아님 회사 앞에서 꽃을 들고 서있는 연인처럼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석가께서 꽃을 들어 보이니 가섭께서 미소 지었다. 달마께서 오늘 내게와 꽃을 들면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을까."

10월 6~31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김 화백의 이번 개인전 속의 달마 대사는 꽃을 든 채 초연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꽃을 든 달마 대사의 모습은 어딘가 심각해 보이기도 하고, 누굴 기다리는 듯 설레어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달마가 꽃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 달마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며 "세상이 꽃 한송이를 통해 이심전심(以心傳心)을 느끼듯 서로가 미소 지으며 소통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한다.

이번 개인전에 전시되는 그의 작품들은 모두 제목이 없는 무제(無題)들이다. 그가 작품들을 모두 무제로 한 이유는 제목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각자의 감성으로 그림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이유에서였다. 그래서인지 꽃을 든 달마 대사의 모습은 더 아련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원철 스님(해인사 문수암)은 김양수 화백의 그림에 대해 "언어를 다 집어던진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화(禪畵)"라고 말했다. 원철 스님이 김 화백의 그림을 두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그가 작업을 위해 문명을 떠나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 은둔생활을 하는 이유도 한몫 한다.



김 화백은 자신의 작업실을 '적염산방(寂拈山房)'이라 이름 짓고 고요를 잡기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작업과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작업실은 그에게 더 이상 단순한 작업실이 아닌 수행처인 무문관이다.

'적염산방'을 두고 원철 스님은 "그 이름은 '염화실(拈花實)'을 떠올리게 만든다"라고 했다. 염화실은 부처님께서 꽃을 집어든 곳인데 그의 산방도 "고요함을 들어 보인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화백의 호가 일휴(一休)인 까닭도 이런 맥락에서 지어졌다.

그는 "쉬어야만 고요함을 잡을 수 있다"며 "그러한 이유에서 아호를 일휴라 지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그의 작업실은 몸과 마음 모두 푹 쉬는 곳이다. 그래서 그의 그림도 모든 걸 내려 놓은 듯 편안하다.

꽃을 들고 기다리는 연인의 모습에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편히 기대어 쉴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다. 이번 김 화백의 개인전에서 달마 대사의 꽃을 든 모습을 통해 그가 전하는 고요함을 느껴보자. (055)934-3161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김양수 화백의 달마도는 제목이 없다.

'동국 예소리' 창단

東大 문화예술대학원 10일 창단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범패'의 한 장면.

불교음악 인재들을 활용, 불교계의 문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동국대 동문과 재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은 동문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예술단 '동국 예소리'를 창단해, 10월 10일 오후 7시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창단 공연을 갖는다.

단원들은 모두 현재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로, 이번 공연은 그들의 예술성과 끼가 맘껏 발산되는 명품공연이 될 예정이다. 공연은 설명을 덧붙인 범패와 작법, 영산회상, 판소리, 민요, 산조, 삼현육각, 승무, 살풀이, 학춤, 토막 창극, 창작 음악 등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 대해 '동국 예소리'의 단장을 맡은 김방옥 문화예술대학원장은 "동국대학교는 한국불교의 종립대학으로서 세계적으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범패나 작법을 불교신도나 각 사찰에 먼저 알려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동국 예소리'는 동국대학교가 한국불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며, 불자들에게 한국전통예술과 불교문화의 멋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예술단이다. 이들의 이러한 예술 활동은 동국대와 문화예술대학원의 홍보와 학생유치, 포교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국 예소리'는 문화예술대학원의 최종민 교수를 주축으로 정각원, 이해랑예술극장 등 동국대 교내 공연 및 사찰 투어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은 안숙선, 이춘희, 강정숙, 이춘목, 정화영 등 인간문화재와 김영임, 조통달, 유창, 김성수, 조갑룡 등의 명인명창들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02)2260-3606

이은정 기자

오대산자락서 불교문화 향연

월정사·강원일보 '생명의 시원과의 만남'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오대산 불교문화축제가 10월 16~18일 '생명의 시원과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 여섯 번째로 열리는 오대산 불교문화축제는 전통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다.

3일간 치러지는 이번 축전은 매일 다른 프로그램으로 형성되어 강원도민 및 많은 불자들에게 오감만족을 시켜줄 예정이다.

주요행사로는 △불교의식을 현대적으로 복원한 한강시원제·유등제 및 만등밝히기 △사찰의 대중화를 알리는 산사음악회 공연 △불교 차인대회 △불교전시 및 학술 △불교 수행 및 문화 체험 등 이밖에 많은 프로그램들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033)339-6800

이은정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2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1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1월 5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⑧ 투차도

백성 삶 속에 스며든 차 문화 한 장면 옮겨

삼천년에 가까운 동양회화의 역사에서 민중의 삶이 회화작품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진 예를 찾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이는 전통적으로 그림을 감상하고 품평하던 계층이 왕실과 귀족, 문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투차도(鬪茶圖)'는 평범한 민중의 삶 속에서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기념비적인 장면을 담은 보기 드문 예이다.



필자미상, '투차도(鬪茶圖)', 비단위에 채색, 34.1x40cm, 흑룡강성박물관 소장.

그림은 송대에 전례 없이 발달한 상업과 차가 유행했던 시대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당시에는 다양한 산업들이 전국적인 판로를 획득하며 급속히 발전했고 농업은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차는 황실에서 농민들이 만든 차를 전매해 직접 제다와 판매에 관여했고 유통에 따른 막대한 조세를 거둬 나라의 재정을 굳건히 했다. 따라서 차 생산은 송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니 차탕을 파는 이들의 행위는 송대 평민문화뿐 아니라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화면에 등장하는 6명의 인물은 거리를 누비다 손님을 만나면 그때그때 차를 우려 차탕을 파는 송대 상인들이다. 행상들 사이에서 차를 사는 손님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들은 함께 모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림은 아마도 이들이 휴식하는 사이 각자가 만든 차탕에 대해 품평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그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서로의 마음을 둘도 없이 헤아릴 수 있는 동료이면서 동시에 좋은 차 맛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이고 보니 이들이 주고받은 품다(品茶)는 소탈하면서도 매서웠을 것이다. 그러나 진지한 가운데에도 긴장된 표정이 읽히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 순간도 즐거운 휴식의 한 부분일 뿐이다.

중앙에서 탕병을 들고 능숙하게 차를 따르고 있는 인물은 지금 자신의 차를 선보일 순서를 맞았다. 탕병의 긴 주둥이에서 흘러나온 찻물은 밀도가 있으면서도 알맞은 온도로 다완에 담길 것이다. 이 상인은 다완을 건넬 손이 모자라자 여러 잔을 포개어 따르고 차가 담긴 잔은 마실 사람이 집어가도록 했다. 화면 좌측하단에 서 있는 인물은 왼손에 많은 잔을 들고, 바구니를 잡은 오른 손에 힘을 주고 있어 그가 다음 차례인 것으로 보인다. 그 뒤의 인물은 탕병을 데우기 위해 부젓가락(火箸)으로 바구니 아래에 깔린 숯들을 고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차를 끓이기 위한 이동형 다구세트를 갖추고 있는데, 따뜻한 차를 팔기위해 화로까지 들고 다니는 모습이 이채롭기만 하다. 다구를 살펴보면 대나무로 만든 다롱(茶籠)에 수많은 찻잔을 담고 숯을 담는 바구니(鳥府)와 탕병바구니, 한쪽 옆구리에는 바람을 일으켜 불길을 세우는 우산모양의 풀무까지 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그림의 인물들은 비슷한 의복과 기물을 갖추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생동감 있는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생생한 당시의 모습과 풍속이 들어가 있어선지 보는 이로 하여금 보편적인 공감과 정서를 자아낸다.

남송대 그림 중에는 무수히 많은 물건을 등에 멘 박물장수를 그린 예도 있는데, 이처럼 세부표현이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기물이 등장하는 경우, 화가는 섬세하고 능수능란한 테크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 당시 그림을 감상했던 사람들은 황족이나 고위관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저잣거리의 풍경을 담은 그림에 흥미를 느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민중의 삶도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⑤ 거조암 영산전



거조암 영산전에는 오백나한이 모셔져있다. 10대 제자와 16성중을 포함해 정확히 오백스물여섯 분이다. 영산전의 문을 여는 순간, 나를 따라온 시간은 도마뱀의 꼬리처럼 떨어져 나갔다. 되돌아갈 기억이 없다면 이곳은 영락없는 부처님시절이었다. 시절을 가늠할 수 없는 눈빛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는 듯했고, 나한 앞에 두 손 모은 불자는 그 이야기를 아는 듯 했다.

두고 온 기억을 따라 영산전 밖으로 나왔을 땐 날이 저물고 있었다. 마당엔 길어진 그림자들이 모여들었다. 문득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가 생각났다. 어둠이 내리고 영산전의 문이 닫히고 나면 경비원 래리처럼 미륵부처님이 나투시고, 오백나한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 영산회상도의 그림이 살아날 것만 같았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만 같은 저녁이었다.

詩가 있는 도량

■ 각연사 가는 길

걸어온 길을 거두어 입구를 봉해 버린
선승의 짧은 생이 풀꽃으로 흔들리는데
내 정작 길 위를 돌며 길을 자꾸 놓친다

멀리서 바라봐야 제 모습 보인다지만
애초 하늘 버리고 무릎 맞대 앉은 산
깊고도 그윽한 속내가 졸졸졸 정겹다

길은 낡았어도 향기 짙은 가을 햇살
누가 알기나 할까 저 이파리 속 벌레 울음
검불은 제 속을 비워 광배를 드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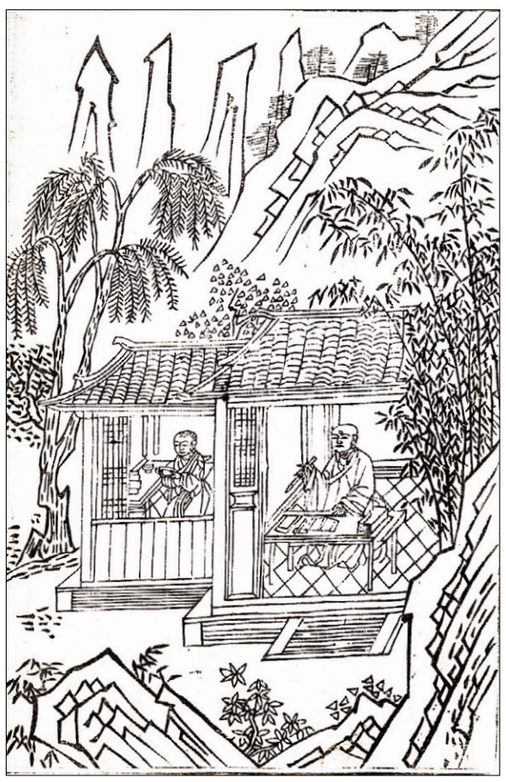
눈물 다 쏟아내고 정좌한 구름 한 채
못물 깨우는 바람 일순 절은 사라지고
비로전 풍경소리는 마을로 내려가네

–권갑하, 시집 〈외등의 시간〉에서

옛 판화의 세계

담연 스님이 지관법을 전수하다 담연지관(湛然止觀)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석담연이 그의 스승인 좌계 선사로부터 천태종의 지관법(止觀法)을 전수받은 후에 지관법을 널리 펴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담연(湛然, 711~782) 스님은 중국 천태종(天台宗)을 중흥시킨 제6조(祖)이다. 속성은 척(戚)이며, 강소성 형계 출신으로 형계 존자(荊溪尊者) · 묘락 대사(妙樂大師) · 원통 존자(圓通尊者)라 불린다. 유가(儒家)에서 태어났으나, 뒤에 현랑(玄朗)을 스승으로 해 천태에 입문했다. 율(律) · 선(禪) · 화엄(華嚴) · 유식사상(唯識思想) 등을 깊이 공부하고 강남(江南)에서 천태의 저술을 연구, 그 선양에 힘썼다. 만년에는 천태산 국청사(國淸寺)로 돌아갔다. 저서에 <법화현의석첨(法華玄義釋籤)>을 비롯한 다수가 전해진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담연 선사는 문인들에게 말하였다. '도를 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예전 선대의 지인들은 고요함으로써 그 근본을 비춰 보고 움직임으로 사물에 응하였으나 이 두 가지에 모두 주착하지 않고 마침내 큰 지방의 세계를 밝게 됐다. 지금 사람들은 혹 공에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하고, 유에 달라붙기도 하여 자신도 눈이 멀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해 도의 작용이 진작되지 않고 있다. 장차 바른 길을 취하고자 한다면 나를 버리고 누구에게 귀의하겠는가?' 이에 크게 최상의 법문을 열고 한편으로 만행을 망라해 모든 상을 거둬들여 틈 없는 경지에 들어가 달관을 이뤘고, 근원으로 되돌아갔으니 이것이 곧 조사들에게서 물려받아 전해온 장구 수십만 언의 내용이다. 마음으로 여러 선의 경지를 헤아려보고 높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아 교 · 선의 두 학문이 함께 치연히 불타올라 뭇 의문이 날로 무너져 잃어버린 구슬을 찾고 그림자를 물어보는 무리들도 조금씩 망상(罔象)의 공행을 보게 됐다. 지관이 성해진 것은 담연 스님의 힘에서 비롯됐다." 천태종(天台宗)은 <법화경(法華經)>을 소의경전으로 천태지자대사(天台智者大師) 지의(智顗)에 의해 개창됐으며, 일찍이 인도의 용수(龍樹)에 발단됐고, 북제(北齊)의 혜문(慧文)에서 혜사(慧思)를 거쳐 수(隋)의 지의에 이르렀다. 지위(智威) · 혜위(慧威) · 현랑 · 담연에게 계승됐으며, 담연에 의해 교세가 중흥됐으나 회창(會昌)의 파불(破佛), 당말오대(唐末五代)의 전란을 거쳐 차차 쇠퇴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담연지관(湛然止觀)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2009' 일붕법왕 문도의 날 대축제

삼보에 귀의 하옵고!
일붕법왕 문도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아래와 같이 일붕법왕 문도의날을 기념하여 일붕조사전 기공식과 함께 일붕법왕 문도의 날 기념행사를 봉행하고저 하오니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0월 10일 (오전 11시 부터) ■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법왕청
1부 – 일붕조사전 기공식 및 일붕법왕 일대기 출판기념회 / 2부 – 법요식 및 시상식, 가수초청 공연

※ 참고사항

1. 일붕법왕큰스님으로부터 건당 및 수계를 받으신 스님, 법사(문. 형제 및 손상좌 포함)님들께서는
이메일wbstf@yahoo.co.kr 또는 02)3216-3216으로 주소, 성명, 법명, 수계년도 등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왕청 제2담화정사에 건립 예정인 일붕 조사전에 문도님들의 이름과 법명을 동판에 새겨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2.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저서나 사진, 비디오테이프 및 큰스님과 인연이 있는 물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저희 일붕법왕문도회 02)3417-1010으로 기증해 주시면 특수 제작하여 큰스님의 조사전에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 02)3217-3217
일 붕 법 왕 문 도 회 ☎ 02)3417-1010
우 110-846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76번지 귀빈빌딩 5층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9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인연찾기
홀로 외로운 독신남녀
초혼, 재혼 70세까지
성실한 男, 착한 女 상담환영
불자님 자녀 인연 맺어 드림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요가 개인, 출장지도
요가 명상 무료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 명상, 오후 : 요가)
위치 : 종로2가 종각역 4번출구
사띠 요가 명상원
02)723-6817

후불탱화
가로 4m × 세로 1.6m, 조성 5년
필요하신 스님들께
저렴하게 보시하겠습니다
010-5153-0052 경북

법우림 스님 소원성취기도
- 소원성취 · 21일 · 백일기도 수시접수
- 천도재 · 49재 · 태아영가천도 수시접수
- 개인 사정과 사찰 형편에 맞게 의식집전

부 설 : 동양철학상담센터
기도성취 전법도량 자성사
문의 서울)02)3663-8416
문의 문경 1566-8426

부전 스님 모십니다
042)282-92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불심깊은보살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50대 전후반
010에 9045또 9045

경관 좋은 산사에서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0-3647-0018

스님 시봉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 컴퓨터 가능자
▷불심이 깊으신 40~50대 분
포천시
010-9269-8445

참선기도도량에서 법우들과 포교하는 법사입니다. 맘껏 기도하고 포교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가능
02)2665-9690 보광 법사

보담 스님의 하늘 소리
천도재, 사십구재, 구병시식, 법문, 지장보살님을 95년도에 친견하고 지금까지 영가천도를 위해 실행합니다.
010-9444-0035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40~50세
양평 용문면
010-7484-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
010-7160-27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경험자 우대
011-9707-3490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011-696-8500

공양주 구함
- 앞에는 저멀리 산으로 둘러 쌓인 호수같은 바다요
- 뒤에는 황토산에 소나무가 울창하도다.

물 맑고 공기좋은 지장성지에서 함께 할 공양주를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전통 범패 배우면서 행자, 스님 하실 분
▷무료 탱화 필요하신 분
경남
016-428-6665

모집안내
1. 불교대학 학생모집(6개월 과정)
2. 위빠사나(자비명상)모집
3. 기도대학(초중고급반 모집-다라니 20단계)
4. 남자 행자모집(교육, 의료, 노후복지 혜택)
5. 공양주(교육, 의료, 노후복지 혜택)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산 73-10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극락사
02)434-1717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1-1747-8558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작은스님의 큰 깨달음
지식은 나를 살리고, 지혜는 모두를 살리고, 경험은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은 실로 보고 들을 수 없느니. / 몸과 마음, 휘고, 뒤틀리고, 쑤시고, 결리고,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달고 사는 매우 불편한 종합병원 같은 중생. /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다이어트! 배우긴 했어도 도대체 정리가 안되는 중생. / 모두 피안의 길로 안내하리. / 세상사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법. 그것을 알아내면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니. / 불보살의 가피를 진정 알고 싶은가
연락처 : 031)386-3967 / 시 간 : 낮 1시 ~ 6시까지
치유, 명상의 건립터 필요함.

사 람 찾 음
속명 : 장종인
법명 : 자혜
나이 : 갑오생 56세
위 사람은 부전으로 다니는 스님으로서 부당행위를 한 자임.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031)471-6675

모십니다 달마 그리실 스님
▷대구 팔공산 약사암
053)851-1080

부처님 가족 모심
기도하며 무료 명리 배우실 분
신심있는 스님, 남녀
011-223-3334

불교의식 무료강의
- 비구, 비구니, 예비승려 불교상용의식 (범음, 범패)
- 전문 염불의식 무료강의 (사물, 작법 일체 강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산천리 521번지 도동 삼보사 대승불교 염불원 원장 보공 스님
052)254-2922
010-5030-6366
010-9413-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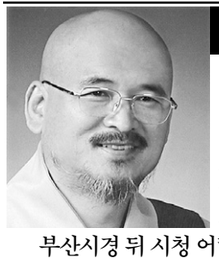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창간되어 주역 사주 관상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유 불 도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싣습니다. 1년 구독료 10만원을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광고(1백만원)+수맥탐지봉(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과 회원증, 해설위원 위촉장을 보내드립니다

돌에 새겨진 石經, 인연자를 찾습니다
대정 12년(1172년) 명문이 있는 석경!
팔각돌기둥에 한문으로 450여자가 새겨져 있는데 높이 84.5cm 지름 26cm로 해인사 목판대장경 보다 앞선 시기에 중국에서 조성되었음.
이 외에 한점은 무량수불근본다라니며 아미타불이 마애불식으로 조성되어 있음. 소장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바람.
수행처소 불사자금이 필요하여 인연자를 찾습니다.
018-246-0211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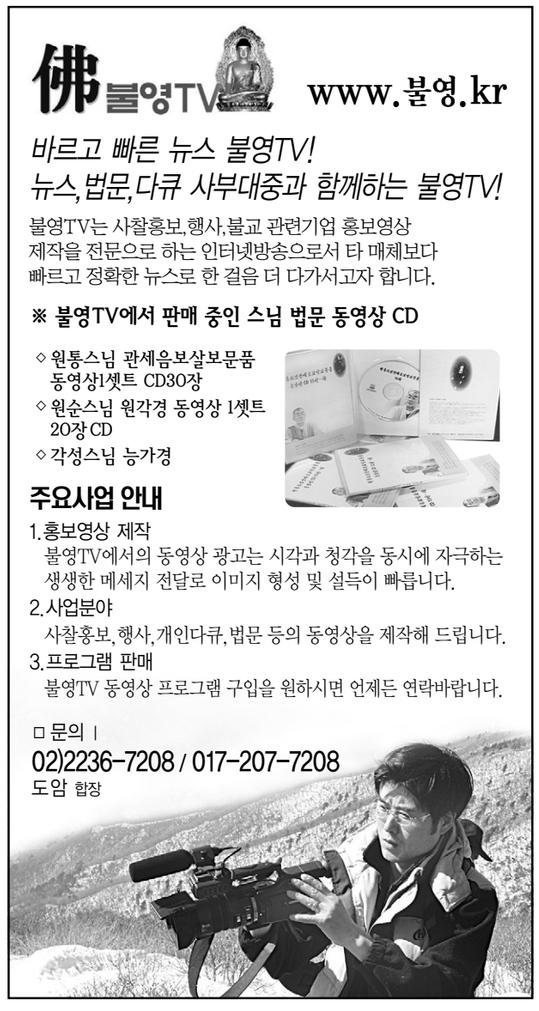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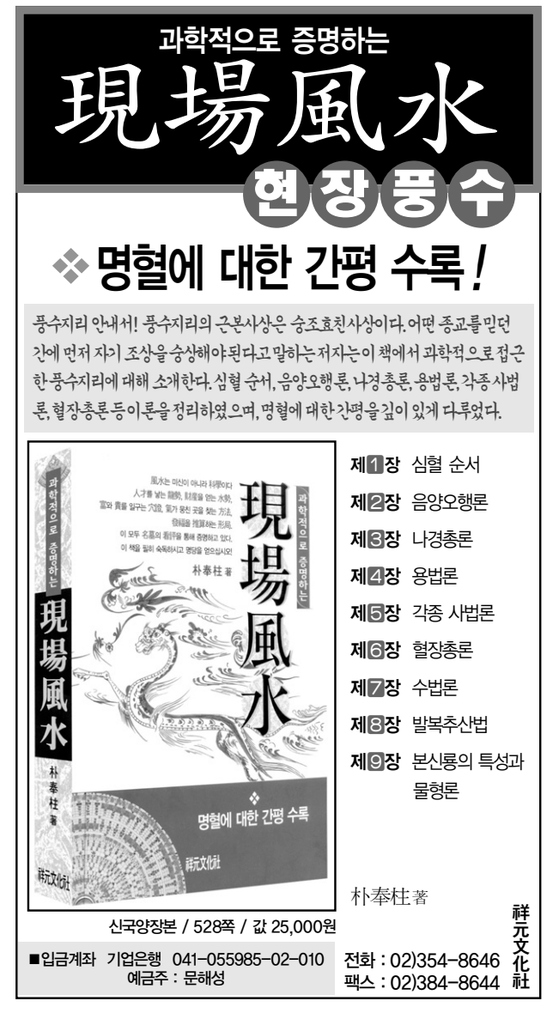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보름단기출가학교 모집
수행자의 모든것을 경험
- 일시: 10월 5일(월)~10월 19일(화)
-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대구큰절 ·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등
- 총주 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원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 자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오후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동해안)
- 법당 : 25(목조)
- 요사 : 50(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 위치 : 대구근교
- 법당 : 60평 (납골당 3,000기 수용가)
- 요사 : 80외 전각 3동
- 부지 : 3,800평
- 가액 : 28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4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30평
- 산밑
- 가액 : 4억 5천

- 위치 : 전북
- 대지 : 45,000평
- 인법당 : 35평
- 산세수려, 모든조건 완비
- 가액 : 평당 2만 2천원

- 위치 : 서울
- 부지 : 140평
- 인법당 : 35평외
- 요사: 25평
- 가액 : 6억 3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한가위 부처님 가피 온누리에

부산 영도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최고,사찰뒤편 산(공원)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부산 전통 와가 사찰(3층)
- 총대지 : 약 108평
- 법당(와가) 30평, 삼성각, 주지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방 8칸
- 법당 뒤편 산(공원)
- 버스 도로 접
- 가액 : 4억 3천(은행 2억 포함)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비밀보장 철저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 부지 : 약2,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 명부전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70평
- 기타 : 산신각, 종각, 석불 등
- 가액: 12억원
- 특징 :대작 불사된 대가람임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소재
- 부지 : 약 30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
- 요사: 3동 140평(방15)
- 기타: 산신각, 일주문, 석불, 석탑등
- 가액: 전세 2억원(조정가능)
- 특징: 대작불사된 사찰을 자기절처럼 운영하실 분 모십니다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암 자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124평, 법당 13평
- 요사채 24평, 방 2, 현대식거실, 주방, 2층 다락방1
- 가액: 2억 2천 (융자 5천 5백 포함)
- 마을안 전원 주택같은 암자

010-9249-19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구제봉 줄기
- 임도 삼리욕을 관광지 목적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곳
- 총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4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대공원에서 200m
- 대로변 2층 25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2)269-0232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8653-321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감만동 대로변
- 3층 건물에 3층, 40평
- 옥탑방 2칸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옥탑방 포함)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8108-0108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포교원 최고의 요지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냉정역 1번출구 앞
- 포교원 임대 하실 분
- 90평형, 130평형

010-3400-94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동부산 대학교입구
- 평수: 30평 , 3층
- 가액: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2천만원

051)545-5572
011-590-57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 삼존불, 시설일체
- 전세 500만원

063)543-5551
010-4427-225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모든 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40만원 (전세가능)

010-9990-5234
신현대부동산

사찰(급)안내

- 위치: 왜관읍에서 5~7분거리
- 평수 : 516평(2필지)
- 법당, 단청, 20평 요사 2동 (산 밑에 있음), 잔디 마당, 지하수 + 수도
- 특징: 청정지역으로 마당에는 메뚜기가 놀고 밤에는 반딧불이 반짝임
- 가액: 3억 8천만원 (대출 4천만원 있음)

개인 사정으로 시세 이하 계산함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4층)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0-6506-40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백안동 백안삼거리 교통요지
- 2층중 1층 한옥주택 임법당(20평)
- 방2개, 거실 및 법당, 욕실
- 주차장 완비
- 현재 철학강의중
- 가액: 전세 2천5백만원

010-9911-34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응상읍 덕계리
- 대지: 200평, 건평: 50평(1층, 2층)
- 2층법당, 삼존불
- 시설 완벽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권리, 비품대) 8000만원

016-9620-099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부 경남
- 부지 : 800여평
- 대웅전, 삼선각, 요사채
- 대작불사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량
- 가액: 5억

010-6455-23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동부지청부근(5분거리)
- 평수: 30평 ● 3층 건물에 2층
- 시설완비,즉시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월 20만원 시설비 약간

051)782-0110
010-3101-1151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땁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3억 5천만원

010-3875-6305

카페 및 토굴 가능한 집 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양평) 남한강 옆 산세 수려함
- 토지, 면적 290평, 건물 60평
- 아스팔트 포장 및 상수도 연결되었음
- 가액: 2억 9천만원

010-4736-35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범일동시장 2층
- 약 50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방3, 공양간, 욕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즉시법회가능
- 역학 및 보살님 최적지
- 유동인구 밀집지역

017-541-1140
051)631-237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부 팔달구 마을 끝집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 읍내동
- 4층 건물 4층 , 60평
- 교통요지,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6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1-539-1156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 236평
- 임법당: 13평, 방 2개,
-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 하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 가액: 7,000만원

033)682-4652
011-865-358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마산 운동장 옆 산호시장 부근
- 평수: 30평(3층 중 2층 전체)
- 삼존불, 신중탱화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스님 부재 중으로 급 안내

055)232-7151
019-550-9725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성북동 (전철 3백미터 대로변)
- 평수: 30평(4층의 3층)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75만원 시설비 3백만원

※원목 불단 3조, 운각 3조 바닥 전기필름시설 즉시 법회 가능

02)762-00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50평 전 120평
- 임법당 15평, 큰방 2칸 작은방1
- 삼존불, 지장불, 산신각 2평 집기 일체
- 비구니스님기도처 적합
- 가액: 8,500만원
- 꼭 필요 하신분 연락 주세요

011-340-5963
010-6667-577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72평
- 10층 건물 중 2층
- 시설완벽
- 가액: 1억 5천만원

010-7188-772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 대지 198평, 건물 30평
- 하천부지 37평(서비스)
- 앞에 계곡이 사시사철 물이 흐름
- (급)양도가 1억 8천만원

010-3088-31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 대지 605평, 건평 130평
- 4동,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 슬라브집 30평, 창고, 화장실
- 가액: 2억 5천만원

010-3174-2336
010-2874-884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동래 (지하철2분거리)
- 현 법회 기도중
- 3층 건물 중 2층 50평
- 스님 공찰 소임관계로 급 안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있음
- 문의 오후 5시 이후

017-586-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상운면 문촌리 148번지
- 법당 30평, 요사채 24평
- 주차장 넓음,전답도 사용가능
- 가액: 전세 3500만원
- 시설비 없음

010-9004-7212
054)672-8231

신도시부근사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 2동 (100평 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잠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건물 법당 25평,요사 30평 2동
- 주차시설 완비
- 가액: 6억 5천만원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79평, 건물 25, 슬라브 2동
- 가액: 2억 5천만원

018-554-6198

암 자 안 내

- 위치: 영천 금호
- 부지: 106평, 건평 60평
- 법당1, 거실1, 방3, 공양간1 창고, 보일러실, 화장실,지하수
- 조경-뒤에는 작은산, 앞에 큰 저수지 有
- 조용하고 아담한 수행도량
- 비구니 스님에게 적합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 부지면적: 전 600평(오미자, 오갈피 재배 농업보호구역)
- 마을과 떨어진 조용한곳, 집입로 500m비포장,방위 동남향,
- 개울물이 흐르는 해발 500m 임야지역 주봉 백두대간 문복대
- 가액: 2천 4백만원

010-8555-44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 한림면
- 대지 800평, 즉시법회 가능, 사찰도량에 계곡 有
- 법당 30평, 요사채방 4칸,
- 법당안 아미타부처님,지장보살, 약사여래관세음보살, 신중단, 칠성단이 별도로 모셔져있음
- 공양실 1칸, 공양방1칸, 스님거주하는방1칸, 주지스님 방 1칸
- 계곡에는 구시유지 산신당 4평,용왕당 3평, 계곡에 기도도량집1채 , 나반존자 약사여래
- 가액: 3억

010-5458-8822

암자 같은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청정지역
- 마을과 국도 150m거리, 산밑
- 목조기와 20평, 방 3개
- 요사채 30평, 주방1, 방 2 ,실내화장실1, 샤워실1, 창고 10평, 산신각
- 총 340평, 마당 넓음,심야 전기 보일러, 텃밭
- 낙동강 휘돌아 흐르고 산 청정수굴 밥을 짓는다
- 가액: 전세 3천만원

010-7157-06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5366-4905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52 호 현대불교
2009년 10월 7일(음 8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내 주처를 빼놓고 내 마음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과연 업보라는 게 있는 건지요

문 스트레스성인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몸은 계속 아프니까 그냥 내 운명이려니 하고 살기는 합니다만 주변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절에 다닌다는 삼촌이 그것도 다 나의 업보인가보다 그러는데 과연 업보라는 게 있는 겁니까?

답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뭐 책도 없고 적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깐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하고 내일 가면 오늘 한 거는 벌써 잊어버려서 모르시겠지만 다 입력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즉 말하자면 숙명통에 입력이 되돌아 가죠.

이 마음내는 것도 작년 마음낸 거하고 올 마음낸 거 하고 둘이 아닙니다. 짝 붙으면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습니다. 그러게 불 한번 딱 치면 반짝하는 그러한 찰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를 마세요. 그냥 앞에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 맡기고, 거기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즉 말하자면 거기 내가 있으니깐 모든 게 내 앞에 용도에 따라 닥치지 내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내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내 한마음 속에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가 거기서 벌어지죠, 해결이 나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쫓고 쫓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팔자 운명 타령은 좀 벗어납시다, 네? 그런 관념, 그런 관습, 운명이다 팔자다, 무슨 업보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해 줘 가지고 그게 습이 돼 가지곤, 나는 업보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런 걸 만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 왜 죄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왜 멀쩡한 사람에게 너는 죄가 있고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남의 가정과 남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그런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명이다 팔자다 하는 것도 없고 병고도 붙을 자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붙을 자리가 없다. 또는 고도 없다, 고(苦)·집(集)·멸(滅)·도(道) 사제법이 있습니다만 '고' 하나만 없다고 생각한다면 집착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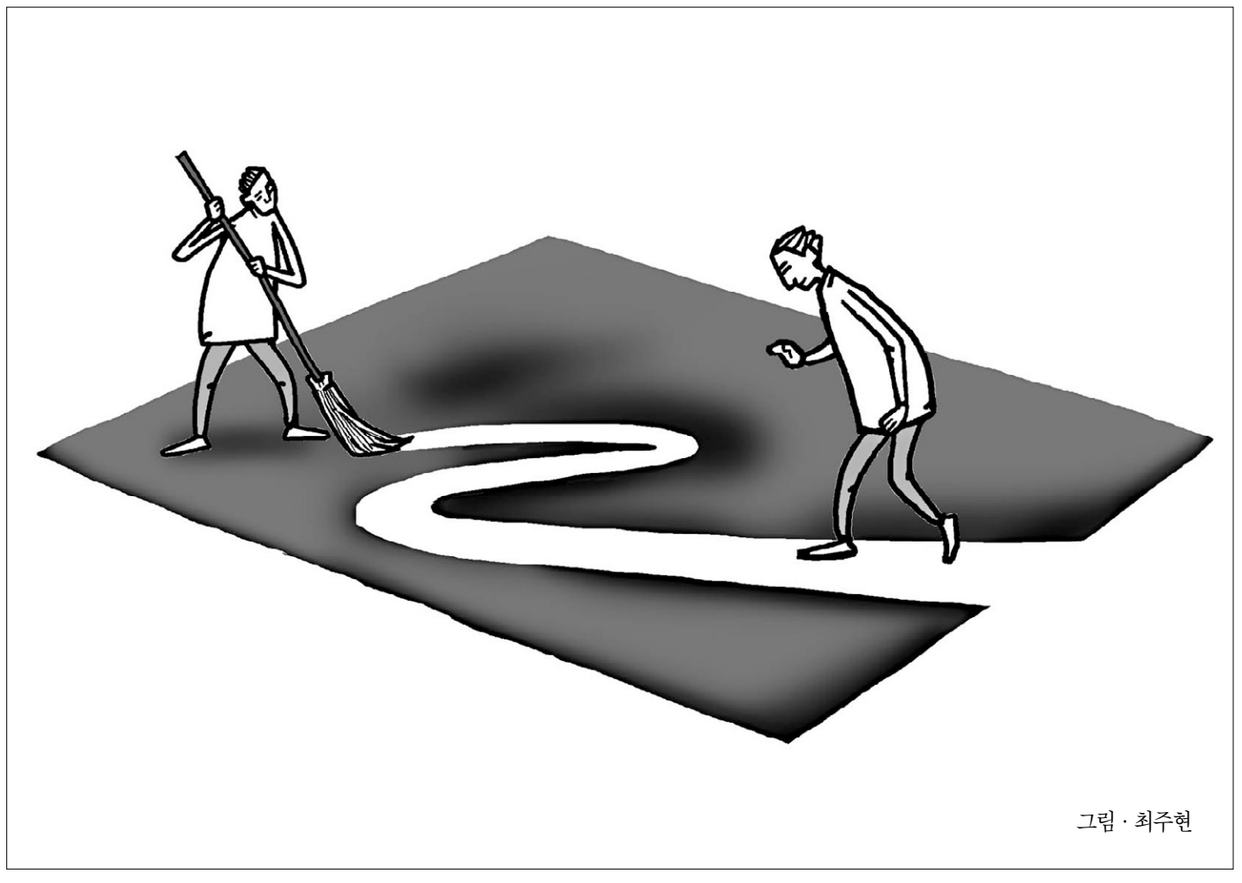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지 이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건 여러분의 그 한마음의 주인공 그 자체, 바로 법좌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 자기 법좌를 믿으라는데, 자기 본래 자성불을 믿으라는데 왜 그렇게 안 믿어요? 글쎄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나오면서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게 있습니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 데는 같이 가 주지 않아요. 사랑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렇고 말입니다. 돈도 "너,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련?" 그러면 "니가 나를 좋아서 쫓아다녔지 내가 너를 좋아서 쫓아다녔니?" 그러고 안 가요. 모두가 그래요. 아무리 부부지간, 자식지간이라 해도 "같이 가지 않을래?" 하면 "네, 묘지까지만 같이 가서 배웅하겠습니다." 또는 "화장터밖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친구입니까? 영원한 친구는 여러분의 지금 몸을 모두 형성시켜서 가져 나온 장본인, 영원한 생명의 근본, 즉 말하자면 법좌, 그 불성 자체만이 자기 선장이에요. 그거를 꼭 믿으세요.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 육신을 자기가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와 같습니다. 예전에 동당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스님네들이 싸우니까 말입니다, 여북하면 남전스님이 고양일 딱 들고선 "너희들이 이 대답을 못 하면 치고 대답을 하면 안 친다." 했는데 영 대답을 못하니까 고양이 목을 딱 쳤거든요. 그랬는데 조주 스님이 들어오니까 그 스님에게 아까 있었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짚새기 신었던 거를 머리 위에 이곤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때요? 멋지죠?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삿갓 쓰고 법좌 들고 바릿대 하나 들면 그저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대장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 턱 믿고 아무 소리 없이 나가거든. 그 뜻을 모르시겠죠? 말로 해 줘서는 아니 되니 여러분의 법좌를 진짜로 믿으시고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몸뚱이 속의 그 생명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 가지고 천백억화신으로 화합니다. 그래서 그저 털구멍을 통해서 들이고 내고 하면서 그 만 가지 법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의 말에 끄달리지 마시고 모든 병고와 가난과 우환, 또 성공과 그런 것도 '바로 내 근본에서 나온 거니깐 거기서 해결해.'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나와 남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 보십시오.

마음공부 초보자입니다

문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교회는 다녀봤지만 절에는 다녀 본 적이 없어서 불법은 생소합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힘들어하고 계실 때 인터넷을 통하여 스님 법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대로 열심히 관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차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공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배울 때는 첫째, 모든 것을 자기 근본인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거기서 형성시키고 거기서 이끌어 가고 내 가정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어떠한 잘못된 자식이나 부모가 있어도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또 조상을 생각할 때도 거기에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으니 좋은 데로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요, 천백억화신이 나투면서 그 주인공 안에서, 내 근본 마음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때로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관세음이 되고 약사가 되고 또는 간호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신도 되고 용신도 되고, 허공신도 되고 삼신도 되고 신장도 되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경찰서에 가면 신장들이 많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리천의 옥황상제다 하면 누구입니까?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게 그대로 우리에게 다 있는 거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하면 바로 경찰서에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잘못 쓰는 게 바로 잘못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각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나를 발견을 못했을 때는 첫째로 무조건 거기에 맡겨 놓고, 모든 일천만 가지를 다 들이고 내는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안되는 것도 거기서 안되게 했으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빨리 돌아갑니다. 왜? 시간과 공간이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폭포수가 내려올 때에 틈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이 프로펠러가 틈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그렇게 초월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닦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틀이 없어서 면경도 없고 면경이 없어서 먼지 앉을 것도 없고 먼지 앉을 것이 없어서 닦을 것도

☞22면으로 계속

전통사찰



■ 대지 : 실,사용 (200평) 등기 123평
■ 법당 : 30평 (목조단청)
■ 요사 : 2동, 종무소 (불사리탑 5층)
■ 특징 : 포교와 전법수행 도량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인접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사찰입니다.
■ 가액 : 11억

010-9336-2568

서울 – 과천 – 의왕 – 수원

오직기도할뿐!

하루 108번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기도 입재

4분정근	
	새벽기도 : 33번
	사시기도 : 21번
	2시기도 : 21번
	저녁기도 : 33번

◆입재일 : 10월 18일 (음, 9월 1일)
(1차 100일 기도)
◆시 간 : 오전 10시 30분
◆동참비 : 10만원
(농협 073-02-262101 전혜진)
◆접수처 : 전화 041)942-9465
팩스 041)942-8465

충남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703-4
성불사 선보 합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buddhanews.com

자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21면에서 계속

없다는 육조 스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정말 나를 발견했을 때에 진짜 실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함으로써 물리가 터집니다. 천체 물리가 터집니다. 그럼으로써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그때 가서는 나는 하난데 내 마음은 마음대로 나툴 수가 있는 겁니다. 꽃이 되려면 꽃이 되고 컵이 되려면 컵이 되고, 다른 데 별성이 되려면 별성이 되고, 혹성이 되려면 혹성이 되고 바다가 되려면 바다가 되고.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바로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는 그 도리를, 평등한 도리를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름 없는, 이름 아닌 열반, 거길 뛰어 넘는다면 뭐가 오느냐. 그대로 세상에 다시 갔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에 내가 갔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볼 때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행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 그대로 찰나니까요. 그대로 여여하니까요. 그대로 자유스러우니까요. 유무가 다 자유스러워지니까요. 보이지 않는 데나 보이는 데나 다 자유스러워지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 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모든 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주처를 빼놓고 내 마음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자기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믿고 자기부터 알아야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평진리를 알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50% 무, 50 % 유 이것을 한데 합쳐서 우리가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라는데…

문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엎치락뒤치락 살다보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라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도 상황이 힘들어지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겠지요?

답 어느 날 어떤 신도가 이렇게 말을 합디다.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파 보니깐요, 참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그냥 꿰뚫어 알 수 있겠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것도 여러분이 과거에 부자로 살 때에 남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치않게 봤기 때문에 또한 바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그걸 죄라고, 업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려 그걸 공부로 아세요. 공부로 알고 거기다 놓으시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아하! 아주 평화로운 것도 있는가 하면 괴로운 게 닥치는 것도 있구나. 이 양면을 다 내가 겪어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양면이 다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부자로 살 때는, 그것도 공부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가난하게 살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다 공부로 알라.' 하는 것도 앞서에 그러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게 닥쳐도 그 닥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양면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닥쳤는데 이것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것이 양면이 다 둘이 아니게 공부구나.' 하고 그냥 공부로 아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시면요, 옭아진 매듭들이 스스로 스스로 찰찰찰찰 풀려요. 풀리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은 그 풀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또 보지 못하십니까? 자기 불성이 진짜로 자기 뿌리라는 걸 왜 그렇게 믿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정신계의 자기 뿌리는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걸 대치하고, 보이는 데서는 육으로 대치한다.' 이럽니다. '둘이 아니게, 심봉과 바퀴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바퀴의 심봉이 끼지 않았다면, 중심이 끼어지지 않았다면 바퀴가 어떻게 이탈되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심봉과 바퀴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데다가 물건을 넣어야 물건이 갈려 나오지, 돌아가지도 않는 데다가 물건을 넣는다면 갈려 나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편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도 비가 오면 어쩌나.' 이럴게 아니라, 비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내일 설법을 할 텐데 비가 오면 이거를 어쩌면 좋은가. 어떡하면 좋은가.' 이렇게 끌탕을 할 필요가 없죠. 부처님께서, 자기 연등부처가, 모두 두 몸이 아니고 모두 자기 제자들이고 자기 한 몸인데, 자기 자식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 몸뚱일 가진 내가 바등바등하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걸음 걸어가는 대로 가거든요.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안 가게 되면 안 가는 거고. 내가 했다 하고 내가 세우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애들 감당하기 어려워요

문 저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참 키우기도 어렵네요.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말입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같아 뭐라고 하면 대들기만 하고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답 그러니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자식이 잘못하면 말로 "너 왜 이렇게 잘못하니?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고 요럭하면 넌 뭐가 되느니 깡통을 차느니, 뭐 어쩌느니…." 별소리 다 하죠. 욕을 해대고 말입니다.

> 사람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삿갓 쓰고 법좌 들고 바릿대 하나 들면 그저 대장부 살림살이 이것으로 족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난한 거, 괴로운 거, 외로운 거, 고독한 거, 속상한 거, 뭐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다 주인공에다 놔 버리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마음의 법이고 도리입니다.

인과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문 불자라면 누구나 인과 법칙을 믿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 인과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우리가 불(佛)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같은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데 중심자, 중심, 심봉과 같고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그 심봉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자체를 볼 때 심봉이 꿰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런 핵과 같은 심봉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거는 움죽거림이 없이도 힘을, 아주 광대무변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자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길 따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내고 여러 가지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는 바로 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깡통은 깡통대로, 무쇠는 무쇠대로, 금은 금대로 그렇게 있죠? 또 사람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또 택시 운전수는 운전수대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가 하면 먹는 것도 끼리끼리 모두 모아놨어요. 이건 누가 그렇게 놓으라고 그래서 놓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이 있는 데 넝마 갈 일 없고 넝마가 있는 데 금 놓을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 탓을 하느냐. 바로 자기 탓이다 이겁니다. 누구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남의 탓이라고 하거나 저놈 때문에 망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게 자기 탓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바로 맡겼을 때에, 맡겨 놨을 때에 바로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거기서 녹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난한 거, 괴로운 거, 외로운 거, 고독한 거, 속상한 거, 뭐 어떤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를 다 주인공에다 놔 버리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마음의 법이고 도리입니다.

인과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문 불자라면 누구나 인과 법칙을 믿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 인과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우리가 불(佛)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같은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데 중심자, 중심, 심봉과 같고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그 심봉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자체를 볼 때 심봉이 꿰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런 핵과 같은 심봉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거는 움죽거림이 없이도 힘을, 아주 광대무변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자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길 따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내고 여러 가지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는 바로 핵을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움죽거리는 바람에 바로 이 물질인 나의 이 기계는 돌아갑니다. 그렇게 삼위일체가 구성돼 가지고 계합이 돼서 같이 길고 짧음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쪼그만 거 하나를 볼 때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리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의 그 중심이 아니라면, 정맥 동맥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속에서 그 수억 마리의 생명들이 세포나 오장 육부의 모든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속의 의식들이즉,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움죽거려 주지 않는다면 지금 죽은 송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들과 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친 이 자체, 바로 그 속에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가난도 나오고 안되는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 글쎄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될 만하면 안 되고 뭐 좀 될 만하다 싶으면 안되고 야,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될 때는 또 되기도 하죠? 이런 것도 다 전자에 내가 한 거만치 인연을 가지고 나온 바로 인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로 인해서 몸 하나가 나와요. 그럴 때 회심곡에도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 이 세상에 탄생하니 20, 30이 당도해도 철이 없어서 부모의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이 피를 받고 또는 살을 받고 뼈를 받은 게 엄마 아빠에게서 정자 난자로 인해 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지금 생명들이 있는 거는,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은 여러분이 예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면서 행해온 행적이란 말입니다. 행적의 인연. 그 인연들이 모두 같이 이렇게 지금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내 속에 잔뜩 들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녹이려면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다 놔야 그것이, 전자의 그 인으로 인해서 과가 된 것이 다 녹아서 마음이 전부 한마음으로 뭉쳐져 가지곤 천백억화신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속에 있는 마음들이 보살로 화한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내 이 혹성 하나에 보살들이 수호를 하고 다니죠. 보호하고 다니니까 누구 하나 나한테 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없이, 강도가 온다 하더라도 강도가 칼을 떨어뜨릴 만큼 그렇게 그 수호신이 수호하고 다니죠.

그러니 그 인과를 내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만들려면 그것이 나온 자리에 다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다 자기한테서밖에, 그 근본에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그 무엇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는 대로 자기 중심 자리에 진심으로 믿고 다 맡겨 놓으셔야 인과라는 이름도 녹아서 하나로 돌아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이병두
칼럼니스트

한신이 될 것인가 봉맹이 될 것인가

이른바 검증을 둘러싸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사이에 갑론을박하던 정운찬씨가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총리 임명 동의안이 처리됐으니 신임 총리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운찬씨는 흔히 'KS'라고 불리는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와 이 나라 최고라는 서울대 교수와 총장까지 지냈다. 그러니 그는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명예를 누려왔고, 버리고 싶지 않은 기득권도 많이 가졌을 것이다. 이번 국회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저런 문제들도 그 중 일부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니 이런 문제들은 정씨 혼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인사들이 똑 같이 갖고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정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운찬씨는 단지 서울대 교수와 총장이라는 명예뿐 아니라 나름대로 '깨끗한 학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여당인 한나라당보다도 오히려 야당 쪽에서 그를 영입하려는 구애노력을 펼쳤던 것으로 비치곤 했다.

그런 정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제의를 받아 총리로 가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지인들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내린 결심일 것이다. 그가 내린 결심이 개인적 명예욕 때문인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 하나의 명예는 잃을 수도 있다는 대승적 결단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비판하듯이 추한 타락인지는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가 내린 결심에 대해 "옳다, 그르다"고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이왕 총리를 맡아 국정의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하니 앞으로 최소한 몇 가지 원칙만은 분명히 해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정씨는 "국정의 기본 원칙에서 대통령과 다를 때에는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사마양저열전'에 나오는 "장수는 때로 임금의 명을 듣지 않는다(君命不受)"의 고사처럼,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견이나 정책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신을 분명히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정 총리가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이와 비슷한 포부를 품고 총리의 자리에 나아갔다가 실패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맺힌 곳을 풀고, 막힌 곳을 뚫겠다"며 총리를 맡아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김상협 前 총리의 경우에도 이 포부를 펼쳐 보이기는커녕 그 동안 쌓아온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학자'라는 명예를 모두 잃어버리고 쓸쓸히 퇴장했다.

<전국책(戰國策)>에 이런 말이 나온다. "앞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않으면 뒷일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前事之不忘, 後事之師)." 앞서 김상협씨 등 여러 사람이 겪었던 실패의 사례를 부디 귀감으로 삼아, 정 총리는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국 한(漢)나라 건국의 영웅이면서도 머뭇거리다가 억울하게 죽게 된 마당에 와서야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며 한탄하고 말았던 한신(韓信) 장군이 되기보다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전한(前漢) 말기의 혼란 속에 "서둘러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을 벗어 도성 문에 걸고 떠나[掛冠] 은둔하여 자신과 가족의 몸과 마음을 보전한 봉맹(蓬萌)이라도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니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낙산사 복원불사의 교훈

2005년 4월 대형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던 낙산사가 5년 여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되돌아 왔다. 낙산사는 화마에 굴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 새로운 불국토를 건설하는 원력과 신심의 위대한 결실을 중생계에 선물하고 있다.

불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무상(無常)이다. 고정된 모습으로 안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주괴멸 하는 물상들 가운데에는 사찰도 포함된다. 건립되고 흥성하다가 쇄락하여 그 자취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시 복원 내지 중창되기도 하는 것이다. 옛 사찰들의 역사 대부분이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다.

사찰의 중창에서 중요한 것은 원력과 호응이다. 중창을 발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폐사가 되는 것이고 중창불사도 시대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낙산사의 복원 불사는 참으로 많은 교훈을 안고 있다. 우선 잿더미로 변한 사찰을 온 국민의 염원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운 스님들의 거룩한 발원이 있었다. 그 발원은 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어서 더욱 빛났다. 낙산사는 불사를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끝없는 보시행을 했으며 관람객들에게도 국수공양을 했다.

또 법고창신의 정신을 잃지 않고 과거의 자료들을 충실히 고증하여 더욱 뜻 깊은 가람으로 되살려 놓는 지혜를 보여준 점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낙산사는 제2차 복원불사 회향을 하며 여러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 한다. 이번 행사가 일체중생이 일불제자이며 일심동체임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태고종의 화합 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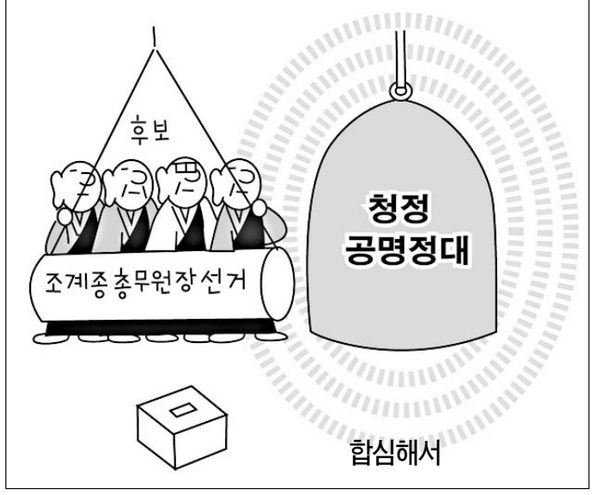
태고종이 안정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한다. 제24대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원로회의 인준을 받은 뒤 3명의 부원장을 임명했고 나머지 인사는 추석명절 이후에 단행할 계획이다. 실 부장 등의 인사와 관련 인공 스님은 전국종무원장 회의에서 추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임명이 아니라 공개적인 추천을 통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태고종의 화합 무드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새 집행부와 종단 구성원의 소통이 원만해야 한다.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고 지혜롭게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집행부의 첫 인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선출제도를 통해 당선된 총무원장이 눈에 보이는 논공행상식의 인사를 한다면 반드시 소외되는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종도들이 납득할만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임명된 부원장들의 경력과 인품이 신임 총무원장 인공스님을 보좌해 종단의 대소사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는 태고종의 화합 구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실 다지기와 대외적 이미지 회복의 두 길을 함께 가야 하는 태고종의 제24대 총무원장 체제의 첫 행보가 가벼운 것은 큰 다행이다. 모쪼록 형성된 화합 무드가 종단 쇄신과 발전의 출구가 되길 기원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사부대중 테마칼럼

유용한데 쓰여야할 깨달음의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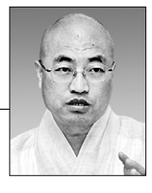
10월의 테마-결실

결실(結實, fructification)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 된다. 하나는 종자식물에서 과실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완전한 종자가 만들어 졌다는 의미와 다르게는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 또는 그런 성과를 의미 한다. 하여튼 결실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좋은 느낌으로 희망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아주 친숙한 낱말이다.

흔히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말과 풍성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젠 계절의 의미와 관계없이 산업과학기술을 활용해, 종자의 결실을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면서, 물류의 유통구조에 따라서 결실종자의 공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일종의 자연계의 결실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산업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인간생활은 편리해 진 반면에 상호불신으로 비인간성과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처럼 종자도 과실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기능을 할 수 없거나 기능저하 현상을 가져오는 결실기능 돌연변이(loss-of-function mutation)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말이다. 이러한 결실기능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발생하는 현상이 앞으로 자연계와 인간세계에 더욱 더 만연하면 그 종착점은 어디일 것인가? 몇 년 전 미국이 이라크에 엄청난 폭격을 가한 충격의 결실은 지구생명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언제부턴가 불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허용된 식육소의 트림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자기장의 이동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부터라도 자각해 철저한 대비책을 전 지구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지구의 변화는 인간의 기대와는 전연 다른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 다른 걱정은 결실을 방해하는 바이러스가 종교계에도 예외 없이 침투했다는 것이다. 개신교계는 제10차 W.C.C. 한국총회개최에 대한 대립이 심화돼 가고 있으며, 불교계도 최근 최고 어른을 뽑는 선거가 좋은 종자를 완성한 분들이 나오기 보다는 바이러스가 침투해 병들었거나 병들고 있는 종자를 가진 분들이 출마하는가 하면, 고의로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상대를 병들게 하는 등 이미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지러운 시대에 거지 중, 박쥐 중, 가사 입은 처사가 나올 것을 경계한 서산 스님의 지혜가 옷깃을 다시금 여미게 한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땅 위에 있는 보물에 마음이 끌리는 자를 경계하면서 인용했다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가을 불자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진정한 깨침의 결실을 얻기를 기원 드린다. 그것은 부처의 가르침인 불교신앙의 결실은 당연히 깨달음인데, 우린 이 깨침의 결실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으며,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도 좋기 때문이다.



도각 스님
원효무애춤전승보존회장
자연치유학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부산 한의사 협회 회장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가면서도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림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 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9월 24일 12시 종강
· 2009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8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5일 12시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빛의 중심으로 사는 지혜, 행복한 깨달음의 도량

홍천 여래사를 가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원소리 200번지에 자리 잡은 여래사는 아주 특별한 도량이다. 여래사로 들어가는 국도변에 선 안내판의 조감도가 하도 장엄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부러 들리곤 한다. 그러나 아직은 한 채의 법당과 작은 산신각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몇 개와 몽고텐트 두 동이 전부다.

"해피 붓다, 해피 만다라, 해피 코리아. 누구든 깨달음의 중심에 서 있음을 알게 하는 도량, 행복한 깨달음의 도량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법당에 들러 굵은 초 한 자루에 불을 켠다. 화재를 방지 하기위해 돌로 만든 불단에 가족의 이름을 정성껏 적은 초를 켜고 3배를 한다. 불단에는 항상 밝은 빛을 발하는 초가 켜 있다. 한 순간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 빛의 성전이다.

"촛불을 켜는 것은 마음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감지하는 어둠만 어두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마음이 어두운 것이 더 큰 어두움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쟁심과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만생명은 밝은 곳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지금 초를 켠 공덕이 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력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다음에도 꼭 들리겠다"고 약속을 하며 돌아가곤 한다.

홍천 금학산 자락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만다라 보궁을 건립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동휘 스님(해피만다라문화원 원장)은 '내가 반응하는 만큼 밝아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에게 보여 지는 것, 느껴지는 것, 들리는 것 등 감각을 통해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밝게 반응하느냐 어둡게 반응하느냐, 절망적이냐 희망적이냐, 기쁨이냐 슬픔이냐 등등.

"그것이 바로 만다라의 도리입니다. 만다라는 깨달음의 눈인데, 자신의 마음으로 그 눈을 떠야 합니다. 촛불법당은 바로 모든 것에 밝게 반응하여 밝은 기운 밝은 생각을 여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만다라 보궁 역시 깨달음의 행복한 길을 열어가는 도량이기에 항상 행복과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한 도량은 결국 개인이 만들어가야 하므로 이 도량은 함께 가꾸어 가는 성전입니다."

출가 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갤러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동휘 스님은 티베트와 네팔 등지를 순례하며 만다라를 만나 수행의 방향을 결정했다. 만다라를 직접 그리기도 하는 스님은 만다라의 시연이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수행법이라는데 확신을 갖고 있다. 만다라를 통한 문화 포교와 수행의 길을 개척하기로 원력을 세운 것이다.



여래사 만다라 보궁 불사를 발원한 동휘 스님과 지역 불자들. 앞줄 오른쪽부터 이하주 하원옥 김경희 동휘 스님 유일주 임명순 이옥단 뒷줄 왼쪽부터 최철원 반종춘 김탁환 김형중 강효식 김창민 불자.

'누구나 해피~' '뭐든지 OK!' 만다라 수행으로 밝은 생각
촛불법당서 광명의 삶 발원… 24일 꽃산신재로 2단계 불사

동휘 스님은 지난해 대구에서 만다라 그림전을 갖고 불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곧바로 11월 15일 지금의 여래사에서 깨달음의 성전 만다라 보궁 건립 선포식을 봉행했다. 그리고 1년 동안 촛불법당을 완공했다. '함께 만드는 도량, 내가 가꾸는 행복'을 지향하는 '깨달음의 성전 만다라 보궁' 불사의 에너지는 동휘 스님과 지역불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솟아난다. 매월 초하루 보름 불공과 매주 목요일 철야로 진행되는 관음정진과 산신기도에 지역 불자들이 한 명 두 명 동참하면서 스님의 불사 원력을 뒷받침 하는 든든한 힘줄이 된 것. 동휘 스님의 원력과 지역 불자들의 신심이 3만㎡(1만여 평)의 태극지(태극문양의 길상이 서린 땅)에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을 상징하는 5개의 원과 신구의를 상징하는 3층의 탑을 기본 구조로 하는 보궁을 건립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보궁 불사의 당면한 목표는 '세계만다라 문화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동휘 스님이 그린 만다라와 소장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만다라들을 상설 전시하고 만다라 수행 템플스테이와 샌드만다라 수행 등 각종 만다라 시연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휘 스님은 보궁 건립 선포 1주년을 맞아 두 번째 단계의 불사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 10월 24일 오후 3시 꽃산신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꽃산신재는 보궁이 들어설 도량부지에 세계의 만다라와 각양각색의 꽃을 장엄하고 금학산과 전국의 명산의 산신들에게 보궁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는 의미를 담아 봉행하게 된다. 때문에 스님은 산신재를 천지를 진동하는 법고소리와 아름다운 꽃 그리고 장엄한 만다라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꽃은 또 하나의 만다라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향기도 좋지만 꽃 속에는 성주괴공하는 우주의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도 아름다운 만다라 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미 깨달음의 행복이 갖춰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꽃산신재는 자신이 해피만다라임을 알고 늘 밝은 마음으로 뭐든지 O.K.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고 '뭐든지 열수 있는 열쇠'를 하나씩 받는 뜻 깊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동휘 스님이 말하는 '뭐든지 열 수 있는 열쇠'란 바로 만다라의 장엄한 아름다움처럼 항상 밝고 향기로운 마음자리를 뜻한다. 그러한 마음이면 세상살이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더욱 가까워진 춘천과 홍천, 여래사는 남춘천 IC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대명콘도 팔봉산 유원지 등이 있다. 또 태극문양의 홍천강을 조망하는 태극전망대도 가까이 있다. 여래사를 품은 금학산과 인근의 산세(山勢)가 웅혼하고 그윽하여 오랫동안 대도량의 탄생을 기다려 왔다고 말하는 듯하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동휘 스님이 그린 만다라. '부다 라이프'.


깨달음의 성전 만다라 보궁 조감도.


한 순간도 촛불이 꺼지지 않는 여래사 촛불법당.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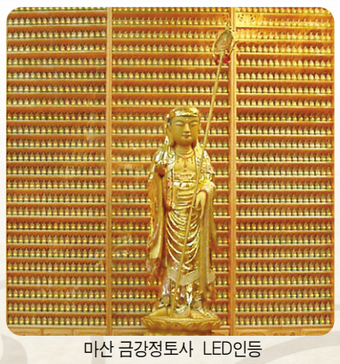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